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newstarrealty.com
Diana Park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오바마 이민개혁, 울고 웃는 이민자들

490만명 추방유예 혜택 받아
이 중 동양계 이민자 40만명
제외된 나머지 600만명 울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4년 전 학생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거주하던 이은주(가명) 씨는 2년 전 시민권자 남편을 만났다. 현재는 누구와 다를 것 없는 매사추세츠 주민이지만 과거의 이 씨는 떳떳하게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을 만큼 신분 문제로 매일 가슴 졸이며 살아야 했다. 이처럼 '불법'이라는 딱지가 떼어지기 전까지 이민자들의 삶은 아슬아슬한 나날의 연속이다.

약 1천130만명의 불법 체류자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손꼽아 기다렸다. 지난 20일, 마침내 약 40만명의 아시아인 이민자들을 포함한 49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되었다.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미국의 이민법 발전에 있어서 작지만 대단한 성과인 것 같다” 고 말한 이 씨는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각자의 사연이 전부 다른 이민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고 더불어 기쁜 마음을 전했다.

추방유예 혜택은 3년 동안 이민국 추방에 대한 임시적인 보호를 제공하

는 것으로 이민신분 혹은 시민권 신청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이날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추방유예 혜택을 받는 대상은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아이를 둔 490만 이민자들이다. 이들은 3년간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세금을 내야 하며 신원조사를

▶▶3면으로 계속



지난 20일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약 50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추방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도데체 퍼거슨에선 지난 여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퍼거슨 시에서 항의하는 군중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세인트루이스 대배심은 24일 경관 데런 윌슨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여전히 분노스럽고 씁쓸하다”는 흑인인 드벨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절제된 반응은 미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보스톤에서도 1400여명이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다.

지난 8월 무렵던 여름날 퍼거슨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동안 경관 데런 윌슨의 이름은 물론 모습까지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마치 존재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러나 미 언론은 대배심의 판결이 내려진

후 데런 윌슨의 사진과 그의 지난 9월 대배심에서 진술을 공개했다. 대배심은 60여명의 증언을 들었다. 그 중에 윌슨의 증언은 당사자의 한 명으로 가장 생생하게 현장의 모습을 담고 있다. 다음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윌슨의 진술이다.

8월 경관 윌슨은 거리를 순찰하다 두 명의 흑인 청년들이 도로 한 가운데로 걸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 중 한 명은 담배를 들고 있다. 그날 경찰 무선라디오에서 계속해서 떠들어 대던 담배 강도 이야기가 머리에 스쳤다. 그는 이 두 흑인 청년(한 명은 사망한 브라운)들에게

▶▶8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japantravelinfo.com
*미국과 인천공항의 왕복편은 지정된 항공사의 티켓입니다.
*도쿄 내 호텔: 이코노미 호텔 기준
*예약상황과 좌석상황에 따라 프로모션 가격에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IACE TRAVEL **Korean Line**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NEWSSTAR Realty of Boston
에나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MORTGAGE MASTER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Exclusive Listings: 콘도

- Brookline, MA, 방 2, 학 2, 1523 sq., \$725,000
- BU, Coolidge Corner에서 도보거리
- 햇빛 잘드는 실내, 벽난로, 풀밭이 적절이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오바마케어, 1주일내 5만명 이상 가입

어린이 보험(CMSP) 이민신분, 소득 상관없이 지원받아

CMSP 거절 시 청문 신청하면 혜택 받을 수 있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오바마케어 공개가입기간이 시작한지 일주일 만에 오만 명 이상의 매사추세츠 주민이 헬스커넥터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을 신청했다.

매사추세츠 주의 오바마케어를 권장하고 보험 거래소 역할을 담당하는 헬스커넥터가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15일부터 22일까지 총 51,967명이 보험을 신청, 본인에게 적용되는 보험 플랜을 확인했다. 이는 이번 공개가입기간의 등록 예상 인원 175,000명에서 225,000명의 4분의 1 가량 되는 숫자다.

23일까지 헬스커넥터를 통해 보험을 신청해야 내년 1월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가입자 중 739명만이 1월부터 시작되는 보험의 프리미엄을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올해 공개가입기간은 새로운 웹사이트로 인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이지만 보스톤글로브(Boston Globe)는 가입자의 약 10%

가 신분증명 문제로 가입절차가 중단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총 4,998명이 온라인 가입 절차에서 신분증명에 실패해 가입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헬스커넥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답변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의 보험 거래소에서도 각각 10%, 15%의 가입자가 신분증명 절차 중 오류 발생을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헬스커넥터 미디어 디렉터 제이슨 레퍼츠는 “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의 사본을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24일 월요일 899명이 서류를 제출해 이 중 739명의 계정이 언락(Unlock)되어 보험 신청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 보험인 CMSP(Children's Medical Security Plan)는 이민신분과 소득에 상관없이 18세 미만 어린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인들이 헬스커넥터를 통해 CMSP를 신청하려다 거절당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아이나 부모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것이 헬스



헬스커넥터 웹사이트, 지난 15일 열린 후 일주일 만에 5만명 이상이 가입했다

커넥터의 사유인데 본래 CMSP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어린이에게도 주어지는 혜택이다.

리젝트(Reject)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의 제기(Appeal)란이 있어 이를 기입해 제출할 시 청문(Hearing)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 재판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오바마케어 공개가입기간에는 기존에 매스헬스를 통해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와 현재 보험이 없는 미가입자

모두 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 직장인 등의 단기 체류자도 포함된다.

보험 신청은 헬스커넥터 웹사이트(www.mahealthconnector.org)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지원되는 헬스커넥터 콜 센터(877-623-6765)는 현재 연장운영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콜 센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시온성교회 정경조 목사 은퇴 감사예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시온성교회 정경조 목사의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 감사예배가 오는 12월 7일 열린다.



이날 감사예배가 끝난 후에는 식사교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 목사는 1971년 미국으로 도미, 터프츠 공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GTE 중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사역의 사명을 받아 고든콘웰 신학교에 입학했다. 1987년 보스톤시온성교회를 개척한 이래 28년간 목회 사역을 이어왔다.

예배 및 교회 문의는 978-758-4541 혹은 978-886-3378로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2월 7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

장소: 보스톤시온성교회 (400 Great Rd., Bedford, MA 01730)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에서는 여러분의 기사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bostonkorean@hotmail.com, 617-254-4654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튼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Threading Threading
- 디지털 펴 & 셋팅 펴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론 펴 Iron Perm
-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인회 연말파티 개최 한인회장 이취임식 미정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뉴잉글랜드 보스톤 한인회(회장 한선우)가 오는 12월 14일 일요일 우번(Woburn)에 위치한 힐튼 호텔에서 연말 파티를 개최한다.

매년 100여명이 참석하는 연말 파티 행사는 송구영신을 기념하는 취지로 기획되며 푸짐한 식사와 음악, 경품 추첨 등의 다양한 순서로 진행된다.

한선우 회장은 행사에 앞서 한인회를 위해 많은 후원을 해준 한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자리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39대 한인회장의 이취임식이 있을 예정이지만 현재로는 회장 후보가 없어 이에 대한 자세한 공지는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2월 14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

장소: 힐튼 호텔(Hilton Hotel, 2 Forbes Rd., Woburn, MA 01801)
dyoo9146@bostonkorea.com



불법 체류자 600만명 가량은 추방유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민국 최종발표 남아, '이민신분 해결' 사기 조심

▶▶1면에 이어서

통과해야 한다. 전과가 있는 이민자는 혜택 수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가진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난 5년간 미국을 잠시라도 떠났다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이민법 행정명령을 통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확대했다.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16세 이전에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 미비 청소년 및 청년은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500만명에 이르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해결책이 된 듯하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그 외 서류미

비자 600만명과 동성애자 26만명, 그리고 최근 중미에서 밀입국해 사회적 조명을 받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은 추방유예의 수혜자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넘쳐나는 현실에 일부 전문가들은 좀 더 포괄적인 이민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보스톤 소재 이민전문 성기주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이민국에서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며 이런 때일수록 불법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기 쉽다. 따라서 신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솔깃한 제안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야 하며 이민국의 최종적인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고 일렀다.

dyoo91146@bostonkorea.com



작년 한인회 연말파티에서 단체상을 수상한 보스톤 한인합창단원들과 한선우 한인회장(우측에서 네 번째), 장수인 단장(우측에서 두 번째).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대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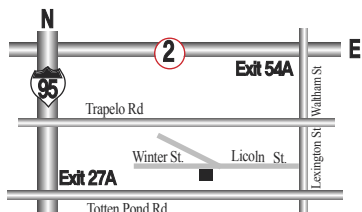
SAT Plus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따뜻한 클래식으로 여는 보스톤의 12월

첼리스트 여미혜
바이올리니스트 이유라
보스톤 무대 선보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12월 보스톤의 추위를 따뜻하게 녹여줄 한인 음악가들의 클래식 연주회가 연말을 장식한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며 인정받고 있는 첼리스트 여미혜와 바이올리니스트 이유라의 무대가 각각 12월 14일과 7일로 예정되어 있다. 클



첼리스트 여미혜가 14일 보스톤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펼친다

래식한 음악 감성으로 한인들을 매료시킬 음악회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첼리스트 여미혜, 보스톤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하이든 협연

첼리스트 여미혜가 오는 12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보스톤 클래식 오케스트라(Boston Classical Orchestra)와 협연을 펼친다.

파넬 홀(Faneuil Hall)에서 보스톤 첫 무대를 선보이는 여씨는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D장조를 연주할 예정이다.

줄리어드 음대를 거쳐 미시간 음대를 졸업, 박사학위를 취득한 여씨는 영국 아버딘 인터내셔널 챔버 페스티벌(Aberdeen International Chamber Festival)에서 피아노 트리오 1위, 중앙콩쿠르 입상 등의 화려한 국내외 수상경력을 자랑한다.

첼리스트 여미혜의 연주회 티켓 문의는 보스톤 클래식 오케스트라 웹사이트(www.bostonclassicalorchestra.org) 혹은 전화(866-811-4111)로 하면 된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유라, 쇼스타코비치 트리오 연주회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NEC)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이유라의 무대가 오는 12월 1일 NEC에서 펼쳐진다.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트리오 2번 E단조 op.67을 연주하는 이씨는 피아노의 러셀 셔먼과 첼로의 로렌스 레서와 함께 한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유라의 연주회가 12월 1일 NEC에서 열린다

이씨는 레오폴트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상 수상 등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뮌헨 아아르데 콩쿠르, 유리 바슈메트 국제 비올라 콩쿠르 등에서 입상해 비올리스트로도 인정받는 음악가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유라의 무대는 12월 1일 월요일 오후 8시 NEC 조던 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연주회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dyoo9146@bostonkorea.com

과기협 연말 파티 6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인 과학 기술자 협의회 뉴잉글랜드 지부(회장 조진행)는 오는 12월 6일 토요일 저녁 5시부터 베드포드에 위치한 밤부 레스토랑(Bamboo Restaurant)에서 연말파티를 개최한다.

연말 파티에는 과기협 회원과 가족, 그리고 과학 기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이날 순서로는 43대 회기에 치러진 행사와 앞으로 있을 행사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며 간단한 게임과 선물을 준비해 참가자들간에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비는 개인 \$30이며 커플 혹은 부부는 \$50이다. 아이들이 동반할 경우 첫째는 \$10, 둘째 이후는 \$5이다. 드레스 코드는 자유 복장이다.

자세한 행사 내용과 참가 등록은 과기협 홈페이지(www.kseane.org)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이메일(contact@kseane.org)을 통해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2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8시

장소: 밤부 레스토랑 (213 Burlington Rd, Bedford, MA 01730)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과기협 제6회 경력개발 워크샵 성황

서남표 전 카이스트 총장
강연에 큰 호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회장 조진행) 제6회 경력개발 워크샵이 지난 15일 토요일에 열렸다.

MIT 한인 대학원 학생회(회장 우성훈)와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이날 미국학계 진출 준비요령과 창업, 미래 설계 등에 관한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과기협 조진행 회장은 “바로 눈앞에 닥친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젊은 과학기술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노력했으며 과학기술자로서 먼 안목의 계획을 세우는데 훌륭한 조언을 들려주신 서남표 박사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특별 강연자로 참석한 서남표 전 카이스트 총장은 “모든 과학 기술자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길을 찾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문제를

찾아 고민하고 항상 도전하고 변화해야 한다” 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과기협 본부 임원인 이성 교수가 이날 워크샵에 참석해 과기협의 주요 활동과 교수로서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조교수 재직을 앞두고 있는 강성훈 박사는 이력서 작성시 주의 사항과 인터뷰 노하우 등 경험에서 우리나라 실정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매스 제너럴 호스피탈(MGH)에서 재직중인 이학호 교수는 과학기술 논문 작성 요령에 대해, 남성한 이사는 최근 창조경제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창업에 대해 논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LG 화학의 후원으로 MIT 대학원 학생회에서 준비한 푸짐한 간식과 함께 네트워킹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후에는 LG 전자와 민주평통 보스톤 협의회(회장 김성혁)에서 제공한 경품(LG 헤드셋과 아이패드 미니) 추첨이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에 사용된 자료와 행사 사진들은 과기협 NE지부 홈페이지(www.kseane.org)를 통해서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나 과기협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이메일(contact@kseane.org)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15일 개최된 과기협 경력개발 워크샵

보스톤 엔젤스 어린이 합창단 첫 무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엔젤스 어린이 합창단(지휘자 김배규, 반주자 강예림)이 오는 12월 14일 일요일 2시에 앤도버 소재 북부 보스톤 교회에서 첫 무대를 선보인다.

다문화 사역 가족음악 예배(MCM Family Music Service)에서 데뷔 무대를 선보이는 엔젤스 어린이 합창단은 지난 9월에 창단되었다.

북부 보스톤 교회의 한성도는 “(엔젤스 어린이 합창단은) 그 동안 매주 토요일에 연습해왔다. 합창 경험이 전혀 없던 어린이들의 소리가 점차적으로 다듬어져 정말 천사들의 소리로 변화되어가는 것이 신기하고 보람 있어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 전했다.

엔젤스 어린이 합창단은 다음 학기를 위해 단원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2015 여름 음악 캠프도 기획하고 있다.

한편, 북부 보스톤 교회

다문화 사역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역의 일환으로 보스톤 엔젤스 어린이 합창단을 지원하고 있다.

보스톤 엔젤스 어린이 합창단에 관한 문의는 978-269-4198 혹은 mcmnorthboston14@gmail.com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입니다.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BLACK FRIDAY Deals

블랙 프라이데이 스마트쇼핑을 위한 3가지 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블랙 프라이데이는 더 이상 하루짜리 축제가 아니다. 대형 업체들간의 가격 경쟁과 손님 끌어모으기 전략으로 세일기간은 매년 더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 거의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이번 쇼핑 시즌은 주말이 끝난 월요일(사이버 먼데이)인 12월 1일까지 이어진다.

다양한 업체의 세일 광고가 쏟아지는 이 시점, 충분한 리서치 없이는 가장 좋은 딜을 알아보기 어렵다. 많이 알아보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준비한 세 가지 쇼핑 팁으로 쇼핑 시즌을 즐기는 것도 좋을 듯하다.

▶전자제품, 진짜 싸게 사는 게 맞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구매하려는 것이 아마 전자제품일 것이다. 컴퓨터와 태블릿부터 HDTV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파격적인 가격으로 소비심리를 자극한다. 하지만 이 '파격적인' 가격이 정말 합리적인 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권장가격(MSRP)이 \$2,200인 HDTV가

\$1,400에 판매된다는 세일 광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꼭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다른 매장에서 \$1,500에 팔리고 있는 제품이라면 지갑을 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일 듯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제품번호를 꼭 확인해



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삼성 H5203과 H6350의 차이점을 아는 사람은 전문가나 전자기기에 엄청난 관심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많이 없을 것이다. 제품번호가 길어질 경우 더욱 구분하기 어렵다. 아마존(Amazon.com)등의 웹사이트에서 제품번호를 검색해 몇 년도에 출시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구형 모델을 신상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파격적인 세일 광고는 어디까지나 대형 업체의 마케팅 전략에 불과하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세일 정보에 속지 않으려면 구매하기 전 제품에 대한 방대한 리서치를 해두는 것을 권장한다.

▶팩토리 스토어(Factory Store), 일반 매장보다 싸 이유가 있다

갭(Gap)이나 제이크루(J. Crew), 바나나 리퍼블릭(Banana Republic) 등의 의류업체는 일반 매장 외에도 팩토리 스토어(Factory store)가 따로 있다. 팩토리 스토어는 상설매장과 같은 개념으로 시즌이 지난 제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해 소비자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쇼핑을 즐기는 곳이다.

하지만 일반 매장과 팩토리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의류 등의 제품은 품질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많은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다. 어떤 업체들은 팩토리 스토어나 아울렛에서 판매될 제품을 처음부터 따로 제작하기도 한다. 디자인이나 보이는 모습은 똑같이 보이더라도 품질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



아울렛이나 팩토리 스토어에 가서 제품을 고를 때에는 태그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지 혹은 제품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장에서 옷감이나 박음질 등을 꼼꼼히 체크한 뒤 팩토리 스토어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환불 및 교환은 미리 알아보고 살 것

도어 버스터(Doorbuster)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빨리, 가장 좋은 제품을 집어 들기 바쁘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물건을 충동 구매할 수 있다. 이 또한 블랙 프라이데이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겠지만 후회 없는 쇼핑을 위해 반드시 환불 및 교환에 대해



알아봐야 하겠다. 타겟(Target)에서 구매한 전자제품을 환불할 시에는 15%의 리스톡킹(Restocking) 비를 내야 하며 메이시스(Macy's)에서 가구를 환불할 경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dyoo9146@bostonkorea.com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만립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 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 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사랑의 실천’ 기상 다진 한양대 동문회 연말모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양대 동문회(회장 정명상)가 지난 23일 일요일 정명상 회장 자택에서 연말모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지난 한 해의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동문회 임원들은 바쁜 일정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 동문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사의를 표했다.

정 회장은 “임덕호 총장의 송구영신 영상메시지를 통해 동문들은 한양의 교훈인 ‘사랑의 실천’을 상기하고 점차 도약하는 한양의 기상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언제 어느 곳이나 우리들의 삶의 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이날 모임을 통해 동문애를 다지는 시간을 가



한양대 동문회가 지난 23일 정명상 회장 자택에서 연말모임을 가졌다

졌다고 밝혔다.

이날 동문들은 한양 총동문회에서 보내온 신년달력을 나누며 2015년 신

년도 더욱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하는 인사로 모임을 마무리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민주평통 미주 청년 컨퍼런스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통일 우리의 희망,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미주 청년 컨퍼런스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캐나다 밴쿠버 웨라톤 호텔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민주평통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현주 보스톤협의회 차세대 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볼리비아 등의 미주 지역 차세대 리더 200여명이 참석해 강의와 토론, 네트워

킹을 시간을 가졌다.

현경대 수석 부의장은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결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북한주민의 DNA까지 변형될 수 있는 피폐한 기본 주민 생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북한 당국에 전달되어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청소년 및 젊은 세대를 위해 ‘주니어 민주평통



좌로부터 김현주 차세대 위원장 김성혁 회장

’과 같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양정중 · 고등학교 하반기 정기 동창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양정중·고등학교 동창회(회장 김용빈)가 오는 12월 13일 토요일 2014년 하반기 정기 및 긴급 동창회를 갖는다.

김용빈 회장은 동창회에 앞서 “보스톤 지역에 새롭게 온 동창을 포함한 많은 동문들을 모임에 환영한다”고

전했다.

브레인트리(Braintree)에 위치한 도쿄 재패니즈 스테이크 하우스(Tokyo Japanese Steak House)에서 열리는 이날 모임에는 동창회비 \$100을 지참해야 한다. 동창회 문의는 김 회장 (617-373-2919)에게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2월 13일 토요일 저녁 6시

장소: 도쿄 재패니즈 스테이크 하우스 (South Shore Plaza, 250 Granite Street, Braintree, MA 02184)

bostonkorean@hotmail.com

북한 연평도 포격 4주년 안보 포럼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국사랑회(회장 이강원)는 지난 22일 토요일 북한 연평도 포격 4주년을 맞아 안보 포럼을 가졌다.

메드포드 소재 한식당 청기와의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보스톤 재향군인회와 공동 주관한 행사로 뉴잉글랜드 한인회와 해병대 동지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강원 회장은 이날 행사를 통해 “교민 사회의 안보 의식이 고취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첫

번째 순서로 유한선 전 뉴잉글랜드 한인회장이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 논하며 “박 대통령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 정책은 합당하며 앞으로 도 흔들림 없이 더욱 강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논했다.

이어 노명석 뉴욕 재향군인 회장은 한미 전시 작전권 연장에 대한 강연을 전달했다. 최덕중 6.25 참전유공자 회장은 탈북자들의 전단지 와 풍선 날리기 행사에 대해 이야기 하며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행동을 규탄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평도 포격 4주년을 맞아 보스톤사랑회가 안보 포럼을 개최했다

보스톤 산악회 정기산행 공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는 12월 6일 토요일 보스톤 산악회가 뉴햄프셔 소재 라파예트 산(Mt. Lafayette)으로 정기산행을 간다.

이번 산행은 A와 B, C조로 나뉜다. A와 B조는 정상왕복 코스(5260 피트)로 8마일의 트레일을 걷고 C조는 8부능선(4200피트)까지 5.8마일 가량 산행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준비물은 배낭화와 스패츠, 방한복, 방풍의, 장갑, 털모자, 스틱, 식수, 간편중식이다. 등산화 착용은 필수며 눈과 얼음이 많아 미끄러운

겨울철에는 반드시 아이젠(마이크로 스파이크 또는 크랩폰)을 준비해야 한다.

집결지는 울스톤 공영주차장(오전 6시 30분)과 Park&Ride Exit2 of RT93(오전 7시 15분)이다.

산행 신청은 12월 4일 목요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신청 시 원하는 조와 집결지, 차량 여부를 밝혀야 하며 신청 후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불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신청 및 기타 문의는 617-851-1883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 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배심원들 불기소 판정,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 산적

배심원 구성 자체도 문제

특수검사 선정에 반대한 카운티 검사 맥클러크의 편파 수사도 도마에

▶▶10월부터 이어서

보도로 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브라운은 윌슨에게 욕을 하며 말을 듣지 않았다. 일반적인 반응이 아닌 격한 반응에 윌슨은 그가 강도형 의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바로 병력지원 요청을 했다. 그리고서는 두 흑인청년 앞에 차를 세우며 가로막았다. 윌슨이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려 하자 브라운은 “도대체 뭐하는 거냐”며 차문을 거칠게 닫았다.

윌슨은 “그(브라운)는 나를 노려보았고 마치 겁박하고 힘으로 누르려 하는 것을 느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윌슨이 물러나라고 말하자 브라운은 대신 주먹으로 윌슨의 왼쪽 뺨을 가격했다. 윌슨은 “얼굴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경찰봉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의 주먹이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봉은 전혀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권총을 뽑는 선택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가 물러서지 않으면 쏠겠다고 하자 브라운은 “비겁한 놈”이라며 권총을 손으로 움켜 쥐었다.

윌슨이 발표했지만 총알은 나가지 않았다. 마침내 발포가 되면서 유리창이 파손됐고 빗방울도 튀었다. 윌슨이 이 청소년을 보았을 때 브라운은 그를 돌아다 보았다. 윌슨은 “그는 나를 쳐

다보았고 가장 화난 표정의 얼굴이었다. 마치 악마 같은 모습이였다. 그는 나에게 두 손을 들고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후 브라운은 윌슨을 또 가격했다. 윌슨은 또 총을 제대로 발사하지 못하다 또 총탄을 발사했고 브라운은 손에 총을 맞아 도주했다.

그러자 윌슨은 브라운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브라운은 도망을 포기하고 전봇대 근처에서 윌슨을 기다렸다. 윌슨이 땅이 앞드리라고 명령했지만 오히려 브라운은 그에게 돌진했다. 윌슨은 그가 그르렁거리며 첫발을 내딛었을 때 마치 차량이 시동을 걸며 출발하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다. 브라운의 왼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고 그의 오른손(총을 맞은 것으로 보임)은 바지춤에 넣고 있었다.

윌슨은 총격을 시작했고 몇 발은 빗나가고 몇 발은 브라운에게 쏘았다. 윌슨은 브라운 머리를 겨냥해 쏘았다. 이것이 치명타가 됐다. 결국 브라운은 쓰러졌다. 윌슨은 12발을 쏘았고 브라운은 총 6발의 실탄을 몸에 맞았다.

대배심이 불기소 평결을 내린 이유

12명의 대배심원은 백인 9명 흑인 3명으로 구성되었다. 기소를 위해서는 총 9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표결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이들은 무려 3달에 걸쳐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으며 지난 금요일인 21일 오후 3시에 만나 논의하고 다시 월요일 만나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경찰이 두 손을 든 비무장 청소년에게 잔혹하게 총격을 가했다는 주장과 윌슨 경관의 진술은 차이가 있다. 분명히 브라운과 윌슨은 드잡이질을 벌였고 결국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얼굴에 입은 타박상 상처를 촬영한 데런 윌슨 경관(사진 좌) 마이클 브라운 총상을 표시한 부검표(옆)의 총알을 맞았다



증인들의 증언은 때로는 상당히 달랐으며 윌슨 경관만큼 직접적으로 묘사한 사람은 없었다. 또한 윌슨 경관의 총과 경찰복 상의 바지에서 브라운의 DNA 흔적이 발견된 것도 드잡이질의 증거이며 브라운이 총을 뺨으려 했다는 증거로 사용됐다.

또한 치명적인 사격을 했을 때 일부는 브라운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지만 상당수의 증인은 브라운이 경관쪽으로 향해 움직였다고 증언했다. 혈흔을 감정한 결과도 브라운이 경관쪽으로 향했음을 뒷받침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브라운은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담배를 흡했다.

불기소 평결에 분노하는 이유

가장 먼저 대배심의 구성비다. 9명의 찬성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데 백인 9명 흑인 3명의 대배심의 구성자체는 벌써 불합리한 구성이 엿보인다. 특히 대배심의 운영도 이례적이었다. 뉴욕타임즈는 일반적으로 검사는 수사를 하고 범죄요건을 구성하고 대배심에게 기소를 권유하는 형식으로 대배심을 진행하는 대신 모든 것을 대배심에 맡

겨버렸다고 맥클러크의 잘못을 지적했다.

둘째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검사인 로버트 맥클러크의 아버지는 경찰이었고 흑인 범죄와 관련된 업무 수행중에 사망했다. 따라서 특별검사를 수용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는 대배심에 기소심사를 맡겼다.

특히 검사들은 윌슨 경관에게는 “총기를 사용할 정도로 위협적이었나” 등의 정당방위의 타당성을 이끌어내는 쉬운 질문만 하고 윌슨이 왜 지원 경찰을 기다리지 않고 도망가는 브라운을 쫓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반면 윌슨의 증언에 반대되는 증언을 하는 증인에게는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다.

셋째, 윌슨 경관의 증언이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채 대배심에게 가장 신빙성 있는 증언으로 제시됐다. 6피트4인치(193센치)에 200파운드(91킬로)가 넘는 윌슨 경관은 같은 크기의 6피트4인치의 브라운이 자신을 움켜 잡자 “다섯 살짜리가 헐크 호건에게 잡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했다. 그의 진술에 과장이 있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넷째, 브라운이 전혀 무기가 없었는 사실을 조명되지 않은 채 그가 윌슨 경관쪽으로 움직였다는 것만 집중 조명됐다. 그가 반발자국 정도만 움직였다는 증언도 있었지만 윌슨은 그가 돌진해 머리만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왔다고 증언한 것이 받아들여진 분위기다. 굳이 지원병력을 기다릴 수 있었는데도 쫓아가 사살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다.

결론

편의점에서 담배를 강탈한 브라운이 경관에게 반항하고 위협했으므로 충분히 범죄사실이 입증된다. 그러나 총상을 입고 도주하는 청소년 브라운을 추격해 다시 총격을 가하고 최종적으로는 머리를 쏘아 사살한 것은 경찰의 과잉총기 사용 혐의가 의심된다. 그를 법정에조차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 더구나 사건 발생 후 경찰은 데런 윌슨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고 검사도 편향기관으로 대배심을 이끌었다.

editor@bostonkorea.com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미주리주 퍼거슨 시에서 브라운의 죽음을 항의 하고 있는 주민들

미 전역 분노 확산...퍼거슨시 주춤

보스톤을 비롯 뉴욕, LA
애틀란타 등의 주요 도시

(퍼거슨 로이터=뉴스1) 정은지 기자 = 비무장 상태의 흑인 청소년 마이클 브라운(18)을 총격으로 숨지게 한 대런 윌슨 경관에 불기소 처분을 결정 한 평결로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광범위한 시위가 벌어졌다고 26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주리주가 주방위군 2000여명을 증강배치 한 후 퍼거슨시의 시위는 소강 국면으로 전환했다.

퍼거슨시 경찰은 25일부터 이날까지 시위대 4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집회를 열고 법 집행관을 폭행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는 시위대가 상점 등에 방화하고 약탈하거나 산발적인 총성이 발생하면서 60명 이상이 체포된 전날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다.

존 벨마르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서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더 좋은 밤이었다"며 총성 및 방화가 감소했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일부 작은 그룹에 국한됐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분노한 시위대가 도로를 봉쇄하거나 경찰과 충돌했다.

보스톤 경찰은 밤사이 1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시위를 벌였고 이 가운데 45명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뉴욕에서도 시위대가 링컨 터널과 트리버로우교 점거를 시도하자 경찰은 페퍼 스프레이를 분사했다. 이 과정에서 10명의 시위대가 체포됐다.

LA의 시위대도 시 경찰본부 외곽에서 물병 등을 던지고 가두행진을

벌이면서 도로를 봉쇄했다.

카심 리드 애틀란타 시장은 "1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평화로운 시위를 벌였다"면서도 이들로부터 빠져나온 약 150명의 시위대가 은행, 택시, 경찰차 등에 돌을 던지는 등의 시위를 벌이면서 24명을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밀워키,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등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윌슨 경관은 이날 ABC뉴스에 출연 이날 ABC방송에 출연한 윌슨은 진행자 조지 스테파노폴러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다르게 대처했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같은 상황이 다치면 또 총을 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브라운의 어머니인 레슬리 맥스패든은 CBS에 출연 "윌슨 경관의 설명을 한마디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

'퍼거슨 사태'로 총기 구매 늘어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시위가 확산되자 덩달아 총기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AFP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 세인트피터스의 얼티메이트 디펜스(Ultimate Defense) 사격 훈련장 관계자는 과거에는 하루 평균 3~5개의 총을 판매했으나 최근 몇 주간 하루 평균 20~30개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사격훈련장을 운영하고 있는 폴 바스틴은 "사람들은 퍼거슨에서 총기를 소지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 사건을 목격하면서 우려를 표했다"며 "최근 이틀간 이 지역에 총성이 지속적으로 들리자 지역주민 일부는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배심 판결이 나오고 퍼거슨에서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한 약탈과 방화행위가 발생한 지난 25일 하루에만 33개의 총을 판매했고 이곳에서 연습에 사용된 총탄은 1만8000발에 달한다고 얼티

메이트 디펜스 측은 밝혔다.

특히 시위대가 경찰차 혹은 상점을 대상으로 방화를 하는 등 시위가 격화되면 이른날의 경우 영업 시작 3시간만에 21개의 총기를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바스틴은 주요 시위대는 비교적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으나 일부가 여전히 약탈과 방화를 하고 있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누군가의 사업에 해를 주거나 생계에 지장을 주는 것은 단순한 항의의 수준을 넘는다"고 말했다.

한편 AFP통신은 퓨 리서치센터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를 인용, 흑인이 총기 사고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날 얼티메이트 디펜스에서 총을 구경하던 사람은 대부분 백인이라고 전했다.

퓨 리서치센터는 현재 미국인 중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34%이며 이 중 백인은 41%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흑인의 총기 보유 비율은 19%에 그쳤다. ejjung@news1.kr



정의가 없는 평화도 없다는 퍼거슨 시의 정서. 이들이 상점을 방화하고 약탈하자 총기 구매가 급격히 늘고 있다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보스톤에서도 퍼거슨 시위 열려

매사추세츠 곳곳에서
시위 발생
비교적 평화적 시위,
40여명 체포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퍼거슨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퍼거슨(Ferguson) 시에서 일어난 흑인 청년 살해 사건을 규탄하는 퍼거슨 시위가 보스톤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25일 밤에 보스톤에서 진행된 퍼거슨 시위는 비교적 평화롭게 열렸지만 수십 명이 체포되었다.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지난 8월에 18세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흑인 청년이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6발이나 총을 맞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도한 총기 사용과 인종 차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지난 25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법원이 백인 경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에 반발한 흑인들이 퍼거슨 시에

서 방화를 하고 상점을 약탈하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미국 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위가 번지고 있다.

보스톤에서도 퍼거슨 시위가 발생해 약 1,500여 명의 사람들이 락스버리 더들리 스퀘어에서부터 사우스베이 지역의 매사추세츠 애비뉴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시위대가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93번 고속도로 진입로를 봉쇄했다.

시위 과정에서 남성 및 여성 40여 명이 체포되었다. 그러나 이날 체포

된 사람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경범죄로 처리되어 신상 기록에는 체포 기록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써픽 카운티 검찰은 밝혔다.

보스톤 다운타운 외에도 스프링필드, 우스터, 노스햄튼, 피츠필드 등 매사추세츠 주 전역에서 퍼거슨 시위가 열렸다. 매사추세츠 주의 퍼거슨 시위는 폭력 사태로 변하지 않고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었다고 주경찰을 밝혔다.

jsi@bostonkorea.com

백인경관 기소 여부 여론 흑인 64% vs 백인 22% 큰 차

소수민족 54% 기소 주장, 생명의 소중함엔 흑백 차이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사살한 백인 경관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미국 내 흑인과 백인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유고브가 지난 14~17일 조사해 25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흑인 응답자 중 64%가 월슨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백인 응답자 중 월슨의 처벌을 원하는 사람은 22%로 흑인 응답자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반대로 백인 가운데 월슨 경관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9%였으나 이에 동의하는 흑인은 4%에 그쳤다.

백인 가운데 이번 일이 사고였다고 답한 응답자는 30%였으며 흑인 응답자 비율은 11%였다.

이와는 별도로 CNN이 불기소 결정이 발표되기 직전인 21~23일 미국인 1천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백인 응답자 중 23%가 월슨을 기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흑인과 라틴계, 아시아인 등 비(非)백인 응답자는 54%가 월슨의 기소를 주장했다.

zitrone@yna.co.kr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보스톤 유일의 홍삼 전문매장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 781-238-0303
H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1~2 안에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 / \$100 이하 \$5 배송비

이벤트 1
\$46 상당 선물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50g FREE
성원에 감사하여
12월 25일까지
연장 실시합니다.

이벤트 2
홍삼추출액 10%



보스톤 경찰 성숙한 대응 돋보여

분노는 표출하되
안전은 유지
폭동 진압장비 착용 안해
일반 순찰 복장유지
때로는 인간적인 경찰의
모습이 훨씬 더 효과적



매사추세츠 주경찰은 일상적인 복장으로 경찰 라인을 만들어 고속도로 진입을 막았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경찰이 지난 25일 밤 퍼거슨 대매심 판결에 분노한 보스톤 시위대 대응전략으로 “부드러운 접근법”을 택해 많은 호평을 받았다

보스톤 경찰은 과도한 경찰력을 이용하기 보다는 절제되고 조화스런 대응을 보였다. 경찰들은 경찰들이 폭력 진압복장을 착용치 않도록 하고 대부분의 병력을 대기조로 편성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또한 항상 순찰해오던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시위의 행진을 따라다녔다.

보스톤 경찰청장 윌리엄 에반스 씨는 공중의 안전을 유지하되 동시에 시위대로 하여금 “분노를 표출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절제되고 측정된 접근법은 경찰들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 때로는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 전략은 시위대를 존중하고 어느 정도 기대 수위를 설정해 시위대에게 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헬멧과 경찰봉 등은 이러한 방법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스톤 시위 규모는 약 1천 400여명 정도로 다른 도시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적었지만 과격하지 않고 조용하게 진행했다.

비록 약 50여명이 체포되었지만 경찰과 시위대가 심각하게 대립하지 않았으며 체포된 50여명에게도 최소한의 처벌이 내려졌고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처벌로 대신했다.

여전히 일부 시위자들은 평화로운 시위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체포하는 등 과도한 진압을 했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주경찰 대변인 데이비드 프로코피어는 이 같은 개별적 과잉진압 주장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다만 “경찰들은 군중들이 주요 고속도로로 진입하려 할 때 진열을 유지하고 아주 절제된 대응으로 혼잡한 상황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커다란 혼란이 야기될 수 있었으므로 고속도로 진입만 봉쇄하는 것이 이날 시위 대응전략 목표였다. 따라서 경찰은 경찰 인간 띠 벽을 만들어 시위대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았다.

주경찰은 폭동진압 부대는 대기조로 하고 평화스런 시위에 진압경찰을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스톤은 과거 레드삭스, 패트리엇스, 셀틱스, 브루인스 등의 우승 후 관중들의 자축 파티를 진압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군중들의 시위에 대해 절제되고 제한적인 접근법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웠다. 이 같은 보스톤 경찰의 시위 진압은 퍼거슨의 진압방법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방법이다.

hsb@bostonkorea.com

도착 2초만에 백인 경찰 발포 장난감 총 12세 흑인소년 사살

(클리블랜드 로이터=뉴스1) 정이나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지 2초도 안돼 장난감 총을 들고 있는 흑인소년에게 총을 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은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비무장 흑인 청소년 마이클 브라운(18)을 사살한 백인 경찰 대런 윌슨(28)이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격화된 소요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12세 흑인 소년인 타미르 라이스는 지난 22일 클리블랜드의 한 공원에서 모형 권총을 갖고 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총에 복부를 맞았다. 라이스는 병원으로 이송된지 하루 만에 끝내 숨졌다.

클리블랜드 경찰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26일 공개했다.

영상에는 소년이 무료한 듯 공원 정자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여러 방향을 향해 총을 겨누는 모습이 나와있다.

이어진 화면에서는 순찰차량을 탄 경찰관 2명이 소년이 있던 정자로 매우 가깝게 다가왔다. 곧이어 티모시 로먼(26) 경관이 차에서 내

린 직후 소년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에드 톰바 클리블랜드 경찰 부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순찰차가 멈춘 뒤 로먼이 라이스를 쏘기까지 걸린 시간은 1.5초에서 2초”라고 밝혔다.

영상에는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았지만 경관들은 라이스에게 손을 들라고 3차례나 명령했음에도 따르지 않아 총을 쏘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신고자는 당시 경찰에 ‘가짜 총’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톰바 부국장은 경찰들이 이처럼 정자에 가까이 멈춰선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사건 후 로먼 경관과 그와 함께 출동한 파트너 프랭크 감백(46) 경관은 휴직 처분 상태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쿡야호가 카운티 대매심이 두 경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9월 오하이오 데이튼 지역에서 장난감 권총을 소지한 남성을 사살한 경찰 2명에 대해 지역 대매심은 불기소 처분을 결정할 바 있다.

lchung@news1.kr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주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과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안건들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을 매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EXCLUSIVE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LEXINGTON **ACTON** **NATICK**

단독주택 **CONDO(2014년 새집)** **CONDO**
For sale: \$ 799,000 **For sale: \$ 699,900** **For sale: \$ 489,900**
2 BEDS, 2.5 BATHS, 1,811 SQ FT 4 BEDS, 3 BATHS, 3,200 SQ FT 2 BEDS, 2 BATHS, 1,303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 학교 좋은 ACTON 지역 NATICK MALL 과 PRIVATE 통로로 연결되어 있음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로 한인 미용재료상 '뷰티 월드' 유리 외벽이 모두 깨지고 상품을 약탈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퍼거슨 한인업소, 총 7~8곳 피해

업소 중 2곳은 전소
일부 보험 안든 한인업주도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벌어진 대규모 흑인 시위로 한인 업소 2곳이 전소되고 5~6군데가 설비 파괴 및 약탈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계송(65) 전(前) 세인트루이스 한인회장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8월 시위 때 가장 큰 피해를 봤던 미용재료상 '뷰티타운'과 휴대폰 가게 '메트로 피시스' 등 2곳의 건물이 완전히 불에 탔다"며 "이들 건물은 퍼거슨 경찰서에서 이어지는 대로(大路)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나머지 5~6개 업소는 모두 미용재료상(뷰티서플라이)으로 이 가운데 1곳이 건물 일부에 화재 피해를 보았고, 다른 곳들은 시위대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내부를 훼손하고 상품

을 약탈해간 상황"이라며 "당국이 당분간 영업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업소 '뷰티타운' 소유주 김승연 씨는 "대배심 결정이 나기 전 대규모 시위를 예상하고 판자로 유리창을 막고 문을 잠그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불을 지를 줄은 몰랐다"고 허탈해했다.

지난 24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이 퍼거슨 시 흑인 10대 마이클 브라운(18)을 총으로 사살한 백인 경관 대런 윌슨(28)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 퍼거슨 시에서 분노한 흑인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계송 회장은 "세인트루이스 지역 토박이 흑인들보다 외지 원정 시위대가 과격 시위를 주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퍼거슨 지역에 주방위군과 경찰이 추가로 투입되고 경계령이 강화되면서 시위가 산발적 형태로 변화했을 뿐 수그러들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 대상이 주로 미용재료상인데 대해 "뷰티서플라이는 흑인 일상

에 '월그린스'(의약품 위주의 미국내 1위 편의점) 같은 존재다. 미용재료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용품을 모두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세인트루이스지역 한인 최희선(44) 씨는 "퍼거슨 시까지는 고속도로로 20분 이상 떨어진 백인촌에 산다. 그러나 대배심 발표가 나온 24일과 25일, 딸아이 학교의 학부모 컨퍼런스가 모두 취소됐고 쇼핑물들도 일찍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최씨는 "흑인 시위대가 흑인 업소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다"며 "주방위군이 추가로 투입됐다는 소식에 시위가 외부로 더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며 다소 안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미주리 주를 관할하는 시카고 총영사관 이재웅 부총영사는 "아직 시위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한인 피해 규모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면서 "인명 피해가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chicagorho@yna.co.kr

퍼거슨 사태로 인종갈등 전면에 현재 경찰제도 개혁도 핫이슈로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비무장 흑인 청년을 총격 사살한 백인 경관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전국적 항의시위로 번진 미국 '퍼거슨 사태'는 미국 사회에 뿌리깊은 인종갈등을 다시 전면에 부각하는 동시에, 흑인사회를 범죄집단시 한다는 비판을 받은 미국의 사법제도를 도마 위에 올렸다.

미국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26일 일제히 사설과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의 사살은 경찰의 과잉대응이었다는 비판과 더불어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방경찰 제도는 이제라도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는 등 다양한 경찰 개혁 요구가 봇물이 터지듯 분출되고 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짜 사설에서 지방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매일 같이 시달려온 퍼거슨 시 흑인사회에는 '인내심의 실험대'였다고 지적했다.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경찰이 조직적으로 불심검문을 가난한 소수자 시민에게 맞추면서 흑인사회 전체를 범죄자 집단처럼 만드는 결과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NYT는 특히 '경찰의 총격으로 젊은 흑인 남성이 사망할 가능성은 젊은 백인 남성보다 21배 높다'라는 최근의 한 통계를 인용하면서, 이는 경찰이 흑인을 '없앨 수도 있는(expendable)'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스턴 글로브도 사설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을 경찰력의 과도한 사용으로 분석했다.

특히 대런 윌슨 경관이 구두명령, 손, 곤봉, 화학물질,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총기에 손을 댄 점을 문제로 삼았다.

17년 경력의 로스앤젤레스 경찰관인 서닐 듀터는 25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지방경찰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듀터는 미국의 경찰이 시(市)-카운티-주(州)-연방의 단계로 분권화된 미국 경찰은 서로 권한이 겹치는 등 그야말로 뒤죽박죽의 상태라고 비판했다.

운전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는 운전자에게 구두경고만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바로 인근 지역에서는 체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듀터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지방경찰 제도는 이제 '화석'과 다름없다면서 이제는 주(州) 단위에서 경찰력을 통합해 지휘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도 이날 '윌슨 경관은 불기소됐지만, 퍼거슨 경찰까지 혐의를 벗은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특히 대부분의 경관이 백인이고, 군대식 장비와 전략을 사용하는 점은 1992년 '로드니 킹 사건'과 LA폭동을 촉발시켰던 LA경찰의 후진성을 연상시킨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quintet@yna.co.kr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781.391.6200

781.391.7700

78 SWAN ST. MEDFORD, MA 02155
FAX: 781.827.0867 EMAIL: SUNAUTOBODY@YAHOO.COM
WEBSITE: http://sunauto-boston.haninis.com/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매매, 구입, 임차/사업체알선



김택운

Realtor


Cell: (617) 678-9330

Fax: (617) 497-9947 E-mail: tkim@century21avon.com
1675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햇스톤
속 눈썹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617-970-6038 ,617-558-8870
시간 : 월요일 ~토요일 (10am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매사추세츠 10월 주택 판매량 다시 반등

6월 이래 처음으로 전년대비 주택판매량 증가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욕1가구 단독주택의 판매량이 한동안 감소세에서 10월 들어 반등세로 돌아섰다고 보스톤 소재 부동산 관련 통계업체가 밝혔다.

10월들어 단독주택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퍼센트 증가했다. 지난 6월 이래 처음으로 작년 동기대비

판매량이 증가한 것이다. 평균 판매가도 지난 9월 2년만에 처음 하락세를 보였으나 10월 들어 \$313,500에서 \$320,000로 올랐다.

워렌드롭의 티모시 워렌 대표는 “10월달의 판매 지수는 늦여름 세일이 반영된 결과” 라고 말하고 “현재는 전체 시장이 보합세” 라고 밝혔다.

지난 여름 보스톤과 인근지역은 상당히 활황세가 보였지만 근래 들어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었다. 1년 전

주 부동산 경기는 활황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였었다. 매입자들이 줄어 있었고 매출과 가격의 상승도 뒤따랐다.

2014년 들어서 10월까지 주택의 판매율은 2013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3퍼센트 하락한 수치를 드러냈다.

한편 10월 들어 콘도세일도 1년 전에 비해 4% 증가했으나 평균 판매 가격은 \$290,000로 1년전에 비해 3.3% 하락했다.

hsb@bostonkorea.com

패소한 인터넷 TV 에어리오 파산 신청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불과 1년 전만해도 미래의 텔레비전으로 자본을 끌어모았던 보스톤 소재 인터넷 TV 에어리오가 파산을 신청했다.

에어리오는 주요 방송국의 신호를 잡아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형식으로 주요 방송사들과 소송을 벌였으며 지난 6월 대법원이 지적재산권 위반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11월 초 에어리오는 보스톤 회사의 문을 닫고 43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결국 에어리오는 파산을 신청하게 됐다.

에어리오의 대표 켄 케오지아는 “파산신청은 여러 소송에서 발생하게 될 과도한 비용 등의 부담을 덜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뉴욕소재 한 지적재산권 변호사는 “파산은 모든 소송을 동결시키게 될 것이며 이를 거쳐서 현재 걸려있는 모든 소송의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에어리오의 의도” 라고 지적했다.



한때 미래의 TV로 자본을 끌어모았던 에어리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

에어리오는 컴퓨터 및 모바일에서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녹화 저장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TV네트워크와 케이블 회사들은 에어리오가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용하고 있다고 소송을 벌였다.

뉴욕, 보스톤 등지의 대도시에서 8

만여명의 가입자를 보유했던 에어리오는 우리별 8-12의 가입비용을 받았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6-3으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3일 후 방송을 중단했으며 가입자들에게 비용을 돌려줬다.

hsb@bostonkorea.com

연말 쇼핑 시즌 모조품 주의

의약품, 스포츠 용품 고가의 럭셔리 제품까지 거의 모든 제품 가짜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정부 관계자들이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시작하는 연말 쇼핑 시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에 세일 물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중에 가짜 상품들이 있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에서는 연말 쇼핑 성수기를 대비해 시장에 대한 감시와 조사 수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밀수된 물품과 모조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뉴잉글랜드 지역을 담당하고 있

는 국토안보부 소속 브루스 포카트 특수 요원은 “모든 종류의 가짜 상품이 있을 수 있다. 의약품부터 휴대폰, 스포츠 용품, 장난감, 신발, 향수, 값비싼 럭셔리 제품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포카트 요원은 이런 시기에 소비자들이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나 스토어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면 한번 정도는 의심을 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포카트 요원은 온라인에서 주문을 할 때는 안전한 결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개인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i@bostonkorea.com

주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10명중 한 명만 어려움 겪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현재까지 오바마 케어를 신청한 약 5천여명의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하지 못해 웹사이트 등록을 완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약 6만여 명이 헬스케어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을 마쳤다.

이번에 등록을 완결하지 못한 주민들은 웹사이트 소프트웨어의 문제이기 보다는 신분을 증명하는 철저한 절차로 인해 보충 서류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보스톤글로벌브가 웹사이트

등록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인터뷰에서 당사자들은 분노했다. 렉싱턴 거주 레슬리 호스맨 씨는 “정말 화가난다. 너무 어렵다” 고 밝혔다. 결국 그는 남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야만 했다. 노스 트루로에 거주하는 리차드 패스크 씨도 자신과 아내의 여권 사본을 우편으로 보냈다. 그 또한 웹사이트에 대해 분노를 표시했다.

이 같은 작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1주만에 51.967명이 등록했고, 지난 25일까지 총 66,278명이 등록해 매끄러운 출발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jsi@bostonkorea.com



Come to Chungdahm ReadWrite Vacation Days
Sign Up Now!

No school on November 11th Tuesday?

Vacation Days is an all - day program designed to give students a leg up and have fun during school holidays. Students will work on school assignments, improve their reading and writing skills, and participate in plenty of creative fun.

When:
Vacation Days is offered the following holidays:
November 11th Tuesday
January 19th Monday
February 16th-20th Monday-Friday
April 3rd Friday
April 20th-24th Monday-Friday

Time:
From 9:00am to 3:00pm

Schedule:
9:00am- 9:30am Homework Hall: Reading and Homework Completion
9:30am- 11:00am Snack and Outdoor Activities or Indoor Exercise
11:00am- 12:30pm ReadWrite Class
12:30pm- 1:00pm Lunch
1:00pm- 1:45pm Homework Hall and Essay Writing
1:45pm- 3:00pm Free Choice Fun - Choose your own creative projects, board games, and more!

Price:
For Chungdahm ReadWrite students: \$60/day
For other students: \$72/day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www.BostonReadWrite.com/schedul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 info@BostonReadWrite.com 이나 전화 857-404-0170 으로 연락바랍니다. 무료 Trial 클래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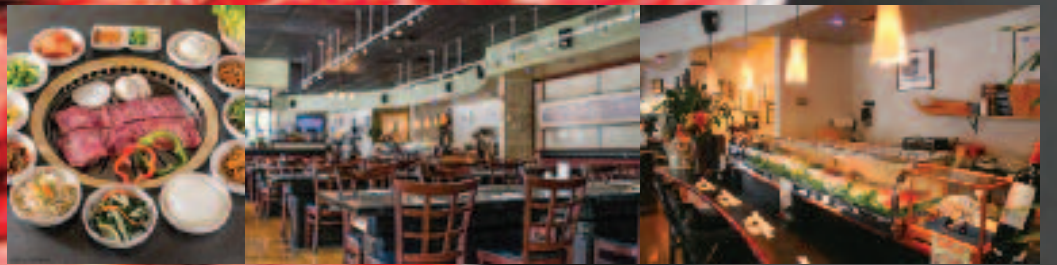
BEST OF BOSTON
2000



Parking Information

-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올가닉 트리트먼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왁싱
각종 펌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최경환 '정규직' 발언, 여 "노동시장 개혁" 야 "끔찍한 탄압"

야당 일각 최 부총리 자격 없다며 사퇴 촉구도...

(서울=뉴스1) 김영신, 서미선 기자 = 여야는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으로 촉발된 노동시장 개편 논란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최 부총리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최 부총리 뜻에 공감하며 노동시장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들은 "서민과 노동자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야당 일각에선 최 부총리 사퇴도 촉구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은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 비정규직·청년 실업 해소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다분히 원론적 언급"이라며 "과도한 정치적 비판과 해석은 노동시장과 경제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 부총리 발언을 두고 말쑥한 정규직을 해고하는 등 엄청난 메스를 들이댈 듯 해석하는 것은 과

도하다"며 "야당들의 정치적이고 정쟁유발적인 비판은 최 부총리 발언을 확대해 노동자 등 국민들의 분노를 조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너무 심하고 고용 형태의 양극화 문제가 크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 표는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이 급락하고 있다"며 "고용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최 부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의 원인은 강성노조들의 압력"이라며 "최 부총리의 제기를 기점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우리 당이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를 허물어 하향평준화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인식이 참 당혹스럽다"며 "정부는 불안에 떠는 국민을 다독이지는 않고 정리하고 요건 완화, 임금체계 개편을 거론하며 서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 고용요건 완화로 노동유연성을 확보해 기업들의 경영을 돕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힘없는 월급쟁이 서민들에게 왜 이리도 모질게 구는지 모르겠다"며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정리하고 요건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는데,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의 약속을 뒤엎는 것이다. 대통령이 전면에서 나서든, 최 부총리를 따끔하게 문책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

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는 어디로 갔느냐. 박근혜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제4정조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노동안정성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규직 고용 유연성을 거론한다는 것은 방향 자체가 틀렸다"며 "(최 부총리 발언은) 끔찍한 얘기다. 해고를 더 쉽게 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겠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도대체 '과보호'가 있다는 것인지 도통 모를 일이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통탄할 노릇"이라며 "편향을 넘어 그릇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위협이다. 최 부총리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최 부총리 사퇴를 촉구했다. eriwhat@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Quincy College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iddlesex Community College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NOV. 28, 2014 - DEC. 4,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RESH! HEALTHY! "TENDER" SWEET!
A KOREAN TRADITION MADE IN AMERICA. SINCE 1982.
 ORGANIC! "SIZZLING" CRISPY! "JUICY"

GET UP TO \$30 MAIL-IN REBATE
 WITH SELECTED TIGER PRODUCTS
 타이거 가전제품 특별할인 이벤트

Purchase selected TIGER products during event period and get up to \$30 mail-in rebate. Ask Houseware Department for the rebate form.
 이벤트 기간동안 특정 타이거 가전제품을 구매하시면 최대 30불까지 우편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작성서류는 각 매장 전자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BESTSELLERS 2014 SAVINGS EVENT

Enjoy unbeatable SAVINGS ON OUR BESTSELLING PRODUCTS at your local Hmart

가장 인기있는 베스트 상품 세일합니다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 Singo Pear** box 신고배 박스 **\$26.99**
- 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for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6.99**
- CHUNGJUNGONE Hot Pepper Paste** 청정원 태양초 찰고추장 6.6 lbs. **\$12.99**
- HAIOREUM Aloe Vera Juice** All Flavors/50.7fl.oz. 해오름 알로에 베라 주스 **\$1.99**
- HAIOREUM Steamed Buns** 해오름 호빵 All Flavors/9oz. ea./for **2\$3**
- Live Lobster** 살아있는 바닷가재 lb. **\$6.99**

H MART 와 함께하는 **농협 NongHyup** 한국 농특산물 특별판매전

NOV. 28 - NOV. 30 & DEC. 5 - DEC. 7, 2014 ONLY AT HMART BURLINGTON STORE

H마트가 농협과 함께 다양한 한국 최상의 제품들로 한국산 농수산물 특별판매전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맛보시고 100%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수산물을 구매하세요

Hmart and Nong Hyup brings Korea's finest products to America. Create your own healthy dinner table with products from Nong Hyu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Fuji Apple 후지 사과 lb. \$1.4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컬리 lb. \$0.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49</p>	<p>Scallion 파 bun./for 2\$1</p>	<p>Boneless Pork Loin 돈까스용 돼지고기 lb. \$4.99</p>	<p>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삼겹살지 슬라이스 lb. \$7.99</p>
<p>Beef Patella Bone 도가니 lb. \$1.59</p>	<p>Thinly Sliced Beef Rib Eye for Shabu Shabu 샤브샤브용 차돌박이 lb. \$10.99</p>	<p>Illex Squid 냉동 오징어 450-600s./lb. \$1.99</p>	<p>TONGTONGBAY Dried Pollock Cut 통통배 절단 코다리 1.57 lbs. \$4.99</p>	<p>TONGTONGBAY Dried Squid (Sliced Red) 통통배 홍진미 오징어채 16oz./pkg. \$12.99</p>	<p>TONGTONGBAY Short Neck Clam Meat 통통배 바지락살 1 lb./pkg. \$2.99</p>
<p>HARU HARU Brown Sweet Rice 하루하루 현미찰쌀 15 lbs. \$19.99</p>	<p>KAGAYAKI Premium Short Grain Rice 카가야키 쌀 20 lbs. \$24.99</p>	<p>SAMYANG Ramen 삼양 라면 4.23oz. x 5ea./pkg. \$2.99</p>	<p>KWANGCHUN Roasted Green Tea Seasoned Laver 광천 녹차김 0.71oz. x 10ea./box \$9.99</p>	<p>HAIOREUM Canned Mackerel Pike 해오름 꽁치 통조림 14.1oz. \$1.99</p>	<p>CJ BEKSUL Sweet Korean Pancake Mix CJ 백설 찹쌀 호떡 믹스 Original/Green Tea - 19oz. \$3.99</p>
<p>ORION O! Karto 오리온 오감자 Original/Chili Chili - 4.6oz. \$1.99</p>	<p>FILIPPO BERIO Olive Oil 필리포 베리오 올리브유 Original/Extra Virgin 50.7fl.oz. \$12.99</p>	<p>MAZOLA Cooking Oil 마졸라 식용유 All Varieties/128fl.oz. \$9.99</p>	<p>Patchwork Slippers 패치워크 슬리퍼 All Colors/pair \$4.99</p>	<p>PARIS Kitchen Mat 패리스 키친 매트 Medium/ea. \$16.99</p>	<p>ZOJIRUSHI Lunch Jar 조지루시 보온병 SL-JAF14-SA/ea. \$37.99</p>

대야 압박 강도 높이는 여, 단독처리 수순 구체화

"야, 구시대 정치" 날치기라고 반발

(서울=뉴스1) 김유대, 김영신, 유기림 기자 =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을 닷새 앞둔 27일 대야(對野) 압박 강도를 높이며 예산 심사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한 야당의 예결위를 포함한 전 상임위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 모드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에 따라 법정시한이 임박할 수록 '시간 싸움'에서 여당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선명성 투쟁과 정쟁,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야당은 국회 정상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역시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 "우리가 합의를 반복한 것은 없다"며 "특정 상임위(교문위) 예산만 원내대표가 보장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우회지원 예산 규모로 주장하고 있는 523억원에 대해서도 "우리당에서 제시한 적도 없고, 그런 숫자를 뽑아낼 재주도 없다"며 "예결위와 예산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야당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안구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담백값 인상안 논의를 위한 안전행정위원회 정상화 등에 합의했지만, 누리과정 논란과 관련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씨가 여전한 상황이다.

김 수석은 안 수석과의 회동 이후에도 "누리과정 지원 규모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야 의견이 일치한 적이 없다"며 "여야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사정을 고려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여당 단독의 수정동의안 표결 처리 카드를 구체화하며 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다.

김 수석은 "충분하게 여야가 의견을 모으고 신뢰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 의원들이라도 예산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여야 단일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여당 단독안이라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늦출 시



이학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비롯한 여당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간이 없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은 단독으로라도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예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심의에 있어 하루가 아닌 한 시간, 단 1분도 아까운 현 시점에서 일방적인 파행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파행의 이유인 교문위의 누리과정 지원 금액 명시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예결위의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

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문위에서는 증액의견만을 표시하고 예결위에서 여야 간에 확정하는 것이 법리상이나 심사체계상으로 합당하다고 수차례 야당을 설득했다"며 "야당의 열린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김세연·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화법 정진에 따라 새해 예산 법정시한 내 처리에 야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을 열

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새정치연합이 예산안 처리를 빌미로 또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조속히 상임위를 재개해 남은 기간 동안 여야가 함께 예산안을 심의하고 합의된 안을 만들어 반드시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길이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국회를 만들어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ydkim@news1.kr

정의장, 담뱃세 관련법 등 14개 예산부수법 지정

30일까지 상임위 의결 안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2월1일 본회의 자동부의

(서울=뉴스1) 여태경, 김영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등 14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부수법안에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이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던 새정치연합은 "야당을 협상과 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반발했다.

최형두 국회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모두 세입예산안 관련 부수법안으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3개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관세법 △국민체육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다.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산업위원회 1건, 복지위원회 1건으로,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이 있어 12월 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다.

정의장은 이날 이 같은 부수법안을 지정하고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고 최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유은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예산부수법안 발표 전 정의장을 찾아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담뱃세 인상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대변인은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경우, 국제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돼 있어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장대섭 의사국장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세에 들어있는 담배소비세와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연계돼 있다"면서 "실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담배세가 인상될 경우 부가가치세(10%)가 함께 증가하며 정부세출 세입예산안에도 부가세 증가분 1000억원 정도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기금 관련 법률안은 예산안 심사 대상인 총 수입 범주에 기금운용계획안이 포함되어 있고 국회법 제85조3의 제1항, 2항에서 예산안 등에 예산안뿐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민자사업 한도액안도 함께 포함돼 있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 의결을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날인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는 2012년에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조항'으



최형두 국회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등 14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로, 지난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처음 적용된다.

정의장은 이에 대해 "30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해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정의장은 특히 담뱃세 인상 관련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는 30일까지 담배가격의 인상 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논의해서 의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부수법안을 지정한 의미는 30일 자정까지 최선을 다해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는 것이

근본 취지"라며 "전적으로 심의하고 협상하고 타결짓는 것은 여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예산부수법안 발표 후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회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조속히 마치고 예산안과 함께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을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12월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은 국회의 본분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반면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80년 이후로 담뱃세는 예산부수법안에 들어간 적도 없고 국세가 될 수 없다"면서 "서민들 등쳐서 국세를 메우는 일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haru@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김영란법 개정 권익위...누더기 법 만들어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당초 정부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나온 정치권의 우려를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등 새누리당 정무위원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와 부정 청탁의 개념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왔다.

권익위가 지난 24일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에 보고한 검토안 역시 부정 청탁의 개념과 법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수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익위는 정부안의 부정청탁의 개념인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해당 표현이 추상적이라 자의적인 적용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 5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 정무위원들 사이

에서 부정청탁 개념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또한 권익위는 당시 법안소위의 의견을 반영해 부정청탁의 개념에 자치 법규와 공직유관단체 사규 위반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를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린 것 역시 일반적인 민원까지도 위촉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권익위는 이번 검토안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거나, 공공기관 법령기준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로 했다.

기존 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도 지역구 민원 사업 해결을 위한 정부 기관 민원과 예산 반영 요청까지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또한 권익위는 공직자 가족에 대한 금품수수 규정 역시 공직자와 관련한 것으로 한정했다.

공직자 가족이 수수한 금품에 대해 선 반환 절차를 신설하고, 반환 거부시 해당 공직자가 소관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해 퇴로를 열었다.

원안에 의하면 법 적용 대상이 130만명에 달하고, 이들의 친족 등을 합하면 1000만명 가까운 국민이 포함되는 등 해당 조항이 연좌제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권익위는 이번 검토안에서도 김영란법의 가장 큰 쟁점인 '100만원 이상·직무관련성 불문' 처벌 조항은 원안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을 제시했다.

원안에서는 금품수수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시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고, 100만원 이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다만 과잉규제 논란을 고려해 직무와 관련 없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익위가 이처럼 정무위의 의견을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반영해 검토안을 내놓았지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안을 두고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권익위가 또 다시 김영란법의 강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초안은 지난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마련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 논의 과정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김영란법 원안'의 직무관련성, 처벌 수위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된 채 국회에 제출됐다.

ydkim@news1.kr

연합뉴스 모바일구축사업 예산 40억 지원

세금으로 특정사 지원 비판 일어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국민세금의 공공성 훼손, 뉴스의 종속성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모바일 구축 사업 예산 40억원이 25일 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의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은 뉴스공급 및 뉴미디어 제작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알려졌다. 개별 통신사의 모바일 앱 구축사업에 국민 세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원배경과 규모의 적정성에 논란이 일고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에 2016년까지 지원되는 국민세금은 120억원에 달한다.

교문위 예산심사소위는 이날 '중소언론사에 대한 무료 서비스 제공 유지' 등을 부대조건으로 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국가기간통신사 지원'과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명목으로 연합뉴스에 총 38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은 40억원이 배정됐으며, 이 예산은 전년도(25억원)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교문위 소속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미디어 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는 없다"고 전액 삭감의견을 냈다가 '중소언론사에 대한 무료 서비스 제공 유지' 등을 부대조건으로 삭감의견을 철회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연합뉴스가 자본잠식이 우려될 정도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며 연합뉴스의 현재 재정상태를 지적했다.

소위원회장인 김태년 의원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B2C(일반 소비자 대상 뉴스 서비스)가 불가피하다고 하면 다른 언론사에서 뭐라고 하겠느냐"며 정부측을 질책하기도 했다.

pjy1@news1.kr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MB정부 공신 정두언 "사자방" 국정조사 반대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야당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다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그 이상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국정조사 결과 아무 성과가 없다면 야당도 거기에 대한 일부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저도 이명박 정부 탄생에 일익을 담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실패했다"면서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큰 사람이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자원외교라는 게 사실은 어이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들어서고 있다

가 없는 이야기"라면서 "우리가 성과를 꼭 내야 된다. 광과르를 올리면서 가면은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장사냐, 자원외교라는 게 개념이 잘 못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의 보수혁신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권력과 뼈대는 건들지 않고 치장만 바꾸고 있다"면서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을 못 얻고 의원들의 반발만 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 "국민경선제를 김문수 위원장이나 김무성 대표가 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목만 얘기 해놓고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다"면서 "당이라는 게 공천권이 없으면 당 대표야 이런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다. 당 대표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는 데 그건 놔두고 공천권을 또 없앤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논의는 없으니까 별로 공감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aru@news1.kr

국방위 소위,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법 통과

국내 및 해외 병역 기피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앞으로 불법 병역기피자에 대한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를 기피·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없이 국외 체류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공개하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기피·면탈 및 감면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병무청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병무청장은 병역의무기피공개위

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기회를 주고, 통지일부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가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해 재심 의하게 한 후 최종 선정하게 된다.

당초 개정안은 인터넷 공개 적용대상을 '국외'에서 불법으로 병역의무 기피를 시도하는 자로 한정했지만, 소위원회에선 '국내'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해 통과됐다.

gayunlove@news1.kr

하나여행사 HANA TRAVEL



● 국내/국제 항공권 할인

● 한국, 중국, 일본, 유럽, 중남미, 하와이, 캐나다, 알래스카 등 관광 패키지



전문가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설계하세요.

617-713-4262(HANA)
email: hana.travel@gmail.com

Toll Free 1-800-368-6977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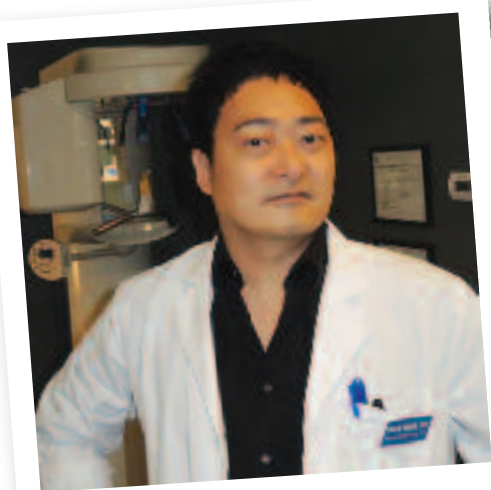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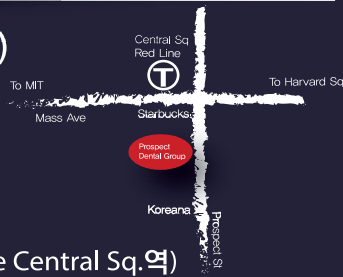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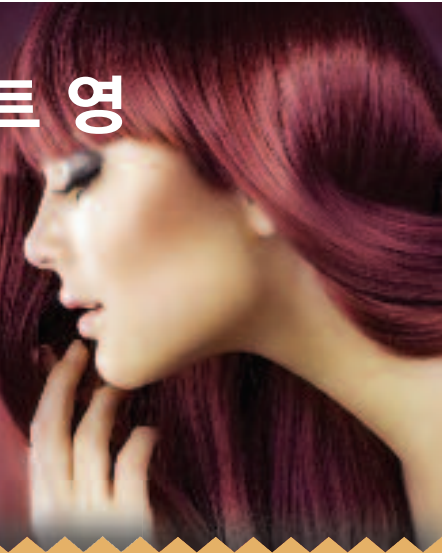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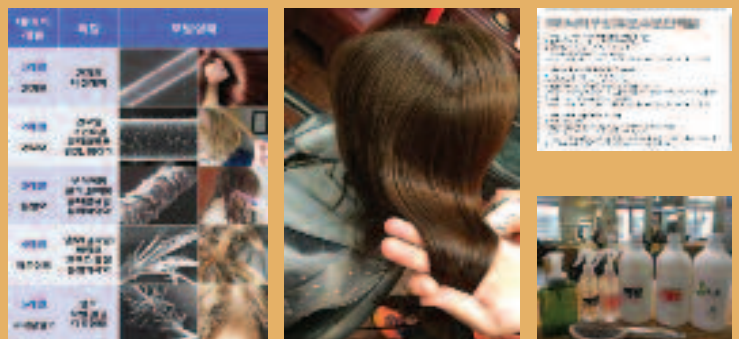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해임' 아닌 '사표 수리', '성추행' 서울대 교수 면죄부 논란

연금·재임용 등 제한 없어
학내 진상조사도 중단 수순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학생 다수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모(54) 교수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본부 측은 강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강 교수에게 '면죄부'를 안겨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 본부 측은 강 교수가 지난 26일 오후 늦게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를 수리해 면직하기로 하는 결정을 27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런데 학교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의원면직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강 교수는 타 대학에서의 재임용이나 연금 수령 등에 있어서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성폭력 등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파면·해임될 경우에만 국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재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교원이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에만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 연금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교수는 지난 2012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대 본부 측은 "강 교수를 감싸기 위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대 본부 측은 "강 교수로서도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 뿐 아니라 강 교수의 인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또 이 사건을 두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이 강 교수의 수업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등 학습권이 침해될 여지도 있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행 사학연금법은 전직 교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연금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 교수의 향후 연금 수령 문제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 결과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달린 셈이 됐다.

한편 이번 사표 수리 결정으로 강 교수에 대한 학내 진상조사 역시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 교수는 서울대 학생 다수에 대한 성추행 의혹으로 지난 11일부터 학내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서울대 본부 측은 "사표가 정식으로 수리되면 인권센터 조사는 진행되지 않는다"며 "다만 교원이 아닐 경우에도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강 교수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성추행 혐의 사건은 지난 7월



서울대학교 자연대 강모 교수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 모임인 '서울대 K교수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X'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강모 교수의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의 한 강변 유원지 벤치에서 인턴 여학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서울대 재학생들이 추가로 제기한 성추행 의혹의 경우 피해 학생들은 검찰 고소 등 법적인 절차를 아직 밟지 않은 채 학내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앞서 피해자 대책위는 지난 26일 "지난 3일간 확인한 피해자만 22명"이라며 "학부, 대학원, 동아리 등에 이르기까지 강 교수의 영향력이 닿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

히면서 추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즉 피해 학생들로서 추가로 제기된 성추행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의 고소 등 형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서울대 법인화 이후 일부 교수들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 본부 측은 "(서울대가 법인화되기 이전에는 교수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사표를 수리할 수가 없었다"며 "사립

학교법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에 자문을 구한 결과 교수가 사표를 제출했을 때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할 재량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답변이 왔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임모(29)씨는 이날 서울대 본부 측의 결정에 대해 "학교 차원의 진상 조사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대로 문제를 덮어두면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bilitykl@news1.kr

'블랙 프라이데이' 한국서도 관심...이유는?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미국의 대규모 세일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화제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전후한 미국의 할인행사 기간으로 이 시기 미국의 모든 쇼핑몰과 가게들은 엄청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관심은 한국에서도 뜨겁다.

최근 온라인 쇼핑 사이트 G마켓은 1~11일 고객 24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해외직구 계획이 있다'고 답한 고객이 전체의 71%에 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해외 직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서 삼성전자 65인치 TV는 1297달러, 우리 돈으로 140만 원, 관세와 배송비를 합해도 2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미국 사이트에서 구입한 가전제

품도 국내 가전업체에서 2년간 AS를 받을 수 있어서 한국 고객들의 관심이 더욱 뜨겁다.

또한 베스트바이 등의 유통업체에서는 애플의 최신 아이폰6도 50% 이상 세일할 예정이다.

하지만 과격적인 할인으로 소비자가 몰리면서 배송은 두 달 가까이 밀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한편 G마켓 마케팅실장은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직구 경험이 없던 소비자들이 올해는 쇼핑 계획을 세우는 등 직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배송과 반품이 우려되는 고객은 오픈마켓 등 신뢰도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걱정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아이폰6 50%라니 당장 참여해야겠다", "그런데 받으려면 두 달 기다려야 한다니 갈등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khe45678@news1.kr

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기소유예'...제식구 감싸기?

경찰 송치시 '기소의견' 냈지만
검찰이 이례적으로 뒤집어
수사 뜬물이다 유리한 정황 나
오자 검찰시민위에 회부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검찰이 대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경찰의 기소의견을 뒤집고 최종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또다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있어도 피의자의 연령, 범행동기, 환경, 범죄 후 정황 등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검사의 처분이다.

제주지검은 25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수사를 받은 김 전지검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 검찰시민위원회의는 검사와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심의하는 곳으로 지난 2010년 8월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에 의해 발족됐다.

김 전지검장 사건을 심의한 광주고

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외부인사 1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사건은 지난 5일 검찰이 시민위에 회부했다.

이후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 참석한 시민위원 11명은 경찰 송치자료, 검찰 수사자료 등을 검토한 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검찰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이 논의 끝에 만장일치를 보였다"며 "시민위원들은 김 전지검장의 행위가 공연성이 낮고 병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크게 고려해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민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전지검장의 신병처리를 놓고 큰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지방검찰청장이 대로변에서 성기를 노출해 경찰에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검찰은 김 전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을 경우 대국민적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전지검장이 범죄혐의가 있지만 초범이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

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소유예라는 모호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바바리 맨'처럼 중증 범죄의 경우 정식재판에 넘겨지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면 보통 약식 기소된다. 경찰의 송치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기소유예는 흔치 않다.

앞서 김 전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밤 11시 32분쯤 제주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을 돌며 총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8월 22일 김 전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제주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광주고검 박철완 부장검사를 제주지검 검사 직무대리 형식으로 파견해 사건을 수사토록 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뜬물들이다 김 전지검장의 병력 등 유리한 정황이 확보되자 뒤늦게 검찰시민위원회에 판단을 떠넘겨 기소유예 처분의 당위성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lennon@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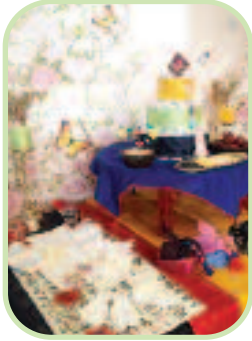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격의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점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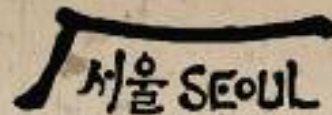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춧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KOREAN • SUSHI • WINES

서울 on Beacon Hill
156 Cambridge St, Boston
617.973.6680
SeoulFoodBoston.com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렬



주일예배: 주일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찬양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1:30
중고등부: 주일오전 11:30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

세빛교회
NewLightKC.org
담당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20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당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Catholic Parish of Greater Boston

<관공성사>
12/5, (금), 6(토) 대림피정 중
12/14(주일) 교중미사 / 청년미사 전, 중, 후
12/21(주일) 교중미사 / 청년미사 전, 중, 후

<성탄 전야>
12/24일(수) 8pm

<성탄절>
12/25(목) 4pm
(성탄절 행사-12:15pm)

<송년미사>
12/31(수) 9pm

<천주의 모친 성모마리아 대축일>
1/1(목) 11:30am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www.kccboston.org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회: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엔터테인먼트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티보 VIP 할인!

11월, 12월
VIP
할인 이벤트

\$29.99 (2년 약정시)

기회를 잡으세요!
이벤트 기간
2014년 11월~12월

이벤트 내용
이벤트 기간중에 가입 고객은
1년간 VIP \$29.99
1년 이후 \$34.99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live, OCN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소남은 한국에서 온 무초(無超)라고 합니다. 15년간 참선 수행을 하고 이제는 붓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외국땅을 밟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한 달여의 시간을 머물면서 이곳 현지인들이 불교와 명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많은 교포분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 보스톤에서 한국 불교(선불교)를 알리고,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되었습니다.


참선 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참선 법회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크건 작건 조그만 공간과 방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가정집의 마루나 방에서도 가능합니다.) 같이 법담을 하고 참선 수행을 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함께 참선 수행을 하며, 좋은 도반의 인연을 만들고, 자등명·법등명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인연이 되면 한국 불자님들과 미국 불자님들과 함께 이곳에 계속 머물 것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 **수행 이력**
출가전: 동국대(경주) 철학과 학사
동국대(서울) 불교학과 석사
제2기 국선도 생활 강사
출가후: 대한불교 조계종 기본 선원 졸업
송광사, 동화사, 법주사, 월정사 등 10년간 선원에서 수행, 산속 토굴에서 5년간 개인 수행

연락처: mucho007009@gmail.com, 010-3560-7009
저는 지금 Cambridge Zen Center (199 Auburn St. 하버드와 MIT중간에 위치)에 임시로 머물고 있습니다.

무초 합장.



**“ 교육 컨설팅의
처음과 끝을 함께합니다 ”**

교육관련 consulting

- 명문 중.고.대학 진학 상담 및 수속
- 방학 특별 활동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주소: 47 3rd St, Suite 201
Cambridge, MA 02141
전화: (617) 225-2200
Fax: (617) 225-2877
이메일: juliet2647@gmail.com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패츠 vs. 패커스, 미리 보는 수퍼볼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주 NFL 최고의 수비를 자랑하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를 34대9라는 비교적 큰 점수차로 꺾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이번 주에는 NFL 최고의 공격팀인 그린베이 패커스와 맞붙게 된다.

패트리어츠와 패커스의 경기는 풋볼 팬이라면 기다려왔던 최고의 빅게임이다. 두 팀 모두 NFL 최고의 쿼터백을 보유하고 있고, 공격 부분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는 팀들이다. 현재 패트리어츠가 NFL 팀 득점 1위(경기당 32.5점)를 달리고 있고, 패커스가 그 뒤를 이어 2위(32.2점)를 기록하고 있다.

9승 2패로 AFC 승률 1위에 위치한 패트리어츠와 8승 3패로 NFC 승률 2위인 패커스의 경기는 올해 수퍼볼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경기다. 특히 패트리어츠는 최근 4경기에서 상대한 팀들이 모두 소속 지구 1위를 기록하고 있던 강팀들이었지만, 모두 연파하며 쾌속의 7연승을 질주하고 있다.

패트리어츠의 8연승을 저지하기 위해 나선 패커스는 리그 최고의 쿼터백으로 꼽히는 아론 로저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력이 최상이다. 공격에 비해 수비가 약점으로 지적되지만, 막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다. 특히 이번 시즌 홈에서는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

패트리어츠는 지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들과의 4연전에서, 첫 3경기를 평균 23점 차이로 승리했다. 이에 대해



NFL을 대표하는 정상급 쿼터백 팀 브래디와 아론 로저스의 맞대결이 이번 주에 벌어진다

빌 벨리치 감독은 “우리가 계속해서 큰 점수 차이로 상대팀들을 대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승리를 거둔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연습한 것이 누적된 결과다. 지금은 눈앞에 있는 상대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패트리어츠는 시즌 초반 부진하게 출발했지만, 치프스와와의 경기에서 패배 이후 7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연습을 하는 동안 패트리어츠의 경기당 평균 득점은 39.5점으로 40점에 육박하며

, 이 기간 동안 쿼터백 팀 브래디는 평균 315.3야드, 22개의 터치다운과 4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했다.

패커스는 전반적으로 패스를 위주로 한 공격이 강하지만, 특히 경기 초반에 막강한 화력을 자랑한다. 올해 패커스는 1쿼터 점수가 66대 0으로 상대팀을 압도하고 있다. 최근 홈 4경기의 전반전 점수는 128대 9로, 이미 3쿼터가 시작하기 전에 상대팀의 전의를 꺾어 놓고 있다.

벨리치 감독은 “우리는 그린베이

에서 패커스를 상대해야 한다”며 “패커스는 홈경기에서 압도적이다. 이미 1쿼터에 승패를 결정짓는다”고 말했다.

패커스의 쿼터백 로저스는 올해 2,957야드, 30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인터셉션은 단지 3개만 있을 뿐이다. 로저스의 쿼터백 레이팅은 119.3으로 NFL에서 가장 높다.

패커스는 조디 넬슨과 랜달 콕이라는 수준급 리시버 듀오를 보유하고 있다. 패트리어츠의 코터백 대릴 르비스

와 브랜든 브라운너가 이들을 효과적으로 막는지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러닝에 대한 수비가 취약한 패커스는 경기당 136.7야드를 허용하고 있어 리그 30위를 기록 중이다. 라이온스와의 경기에서 201야드,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한 러닝백 조나스 그레이와 최근 다시 합류한 그개릿 블론트가 러닝에서 활약한다면 의외로 쉽게 패트리어츠에 승기가 넘어갈 수도 있다.

jsi@bostonkorea.com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p>유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p> <h3>새미치과 특별할인</h3> <p>고성형 50% 할인 150만원 → 75만원</p> <p>비밀리핑 80% 할인 80만원 → 16만원</p> <p>안검술 20% 할인 20만원 → 4만원</p> <p>고국에서 인문학과 문인에게 *필요한 시술만 선택하세요!</p> <p>새미치과</p>	<p>유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p> <h3>어피끄 에스테틱 특별할인</h3> <p>40대 이상 여성 19만원 → 15만원</p> <p>40대 이하 여성 20만원 → 16만원</p> <p>25세 이하 여성 25만원 → 20만원</p> <p>32세 이상 여성 32만원 → 26만원</p> <p>35세 이상 여성 35만원 → 30만원</p>	<p>유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p> <h3>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h3> <p>비뇨장제 + 발기장제 + 광선기 + 조루 + 비뇨카검 검진 -95만은 80만원</p> <p>남성비뇨기 비뇨기과 수술전문기관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p> <p>주요수술 비뇨기과, 조루, 신장, 전립선, 조루, 조루수술, 전립선, 전립선수술 등</p> <p>이운수 & 조성완 비뇨기과</p>	<p>유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p> <h3>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h3> <p>안면 윤곽, 양면 가슴, 골체, 체지방을 줄이는 안면 성형에서 자신감을 찾아주세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안면윤곽 (2회)</td> <td>안면윤곽 (1회)</td> <td>목위 리프팅</td> </tr> <tr>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500만원</td> <td>600만원</td> <td>300만원</td> </tr> </table> <p>소근골 -200만원 150만원</p> <p>중근골 -300만원 150만원</p> <p>중근골 가비 -300만원 200만원</p>	안면윤곽 (2회)	안면윤곽 (1회)	목위 리프팅	-700만원	-40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안면윤곽 (2회)	안면윤곽 (1회)	목위 리프팅										
-700만원	-40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상담 및 문의: 보스턴코리아 617-583-2993

행사기간: 2014년 12월 ~ 2015년 2월

해외 의료 사업 팀장 김수남

미국문의: 818.331.0401 카카오톡: 010.3469.4040
이메일: hura CEO@hura.kr 한국문의: 82.70.4141.4040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감사(感謝)

범사에 감사(感謝)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 데살로니가전서 5:18

말씀(言)이 육신(身)이 되어 우리(寸)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내 아버지(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 요한복음 1:14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재력이 청부살해에 연루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판사 박정수)에 의해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0월 27일.

1970년 충남 서천 출신으로 수도권의 한 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면서 운동권 학생들을 부추긴 386 운동권 출신. 대학 졸업 후 10년 동안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 노무현 대통령 후보캠프 기획의원, 그리고 열린 우리당 최연소 대변인을 거쳐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제8대 서울시의회의원으로 당선, 그 동안 100여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 의회 활동에 적극적이었지만 남부지법의 무기징역 판결로 재력을 무참하게 살해 지시한 장본인이 되면서 '족망 받던 정치인에서 살인교사범' 으로 떨어졌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정치인생이 끝난 마침표를 찍은 셈.

한편 한국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세월호 침몰 때 승객 구출 책임에 소홀했던 책임을 물어 선장 이준석 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지난 11월 12일.

기관장 박 씨에겐 징역 30년, 나머지 선원 13명에게 징역 20년에서 5년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장 이준석 씨에 대해 '승객들이 죽어도 좋다' 는 생각에서 자기만 탈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죄를 인정' 하지 않았단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15명은 세월호가 침몰하기 직전 가장 먼저 탈출했다. 그때 선장이준석 씨는 속옷차림 하의(下衣)에 양말,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 기관사 2명은 배 안에서 해경이 올 때까지 생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마음을 진정시킨다며...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탈출을 권하기 전에 선내 방송을 통해 '절대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서 기다리라' 고 이 말을 믿고 단원고 학생들과 승객들은 빠져들어가는 배 안에서 웅크린채 '아 나는 진짜 죽는 것 아냐?' '살아서 보자' 는 카카오톡 서신을 교환했단다.

선장과 선원은 승객의 안전수송이 직업윤리의 기본이다.

이번 재판은 자기 직분에 불충실해서 일어난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한 선장, 선원들에 대한 응징인데...

이 판결로 요즘 위협요소로 등장하는 원전(原電), 첨단 무기, 고속철 등을 건설, 개발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엉터리 부품 사용 등의 보도는 개발건설에 대한 감사(感謝)보다 피해의식이 개발 혜택을 휘감고 있는 판

먼저 감(感)은: 動也동야 = 감동할 감.
感: 威함 = 同也동야: '갈을 함' 과 心심: 形之君明主 형지군명주 = '마음 심.' 두 글자가 합해 感이다.

'갈을 함(咸)' 자의 구성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旨: 味也미야 = 맛있을 지.

통해 예수님을 상징하는 "广 = 굴바위 엄" 에 화합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합해야 된다. 정리하면 咸은 "슴: ①結결신: 합할 함" 으로, 다시 말해서 人子(인자)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잊으면 感謝의 뜻을 못 잡는다.

해서 感謝의 큰 전제가 同心: 동심 = 威心(합심)을 꼭 알아야 한다.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謝: 배신 = 사례할 사.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를 못할 수 밖에."

해서 사도 요한(John)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을 말씀화(化)시키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을 강조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In the Beginning, there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God.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Through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요한복음 1:1-3

따라서 요한 사도는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임마누엘(Immanuel) 하나님으로 인성(人性)과 신성(神性)을 갖추신 분으로 소개했다.

마태복음 시작에서도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심을 증거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Immanuel - which means God with us." 마태복음 1:23

예수님의 임마누엘 아이디(ID)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님 탄생보다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같은 '임마누엘 탄생' 이 예언됐었다.

"그러므로 주(主)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

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명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나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天父)의 말씀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Immanuel) "하나님 말씀" 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님만 잘못 믿는 것 아니다.

그가 세상에서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 감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

바울 사도(Paul)가 바로 이 점에 역점을 두고 데살로니가(Thessalonians)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으로 신분이 밝혀져야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이 천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시지 않는 한 어떤 감사(感謝)도 무용지물이다.

세계 최대의 갑부 빌 게이츠(Bill Gates) 부부는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한 백신 개발과 교육용 컴퓨터 보급 등에 \$302억(약 32조원)을 기부해 있는데 중국의 최고 부호에 올라온 마윈(馬雲, 50)은 "부자는 좋은 것이지만 중국 최고 부자는 좋은 게 아니다. (부자라는 것 때문에 얻게 된) 마음의 고통을 덜기 위해 기부에 앞장서겠다" 고 미국의 CNBC 인터뷰에서 말했다.

돈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으로 임마누엘화(化)가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되어진 일에 감사하는 것." 感謝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고 풍족해도 죽은 것이다.

임마누엘을 모르니까...

“보스톤엔 보스톤 **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개국 다국적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4,800
Sharon, MA
3 Beds, 2.5 Baths, 1872sf.
잘 관리된 좋은 구조의 집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99,900
Woburn, MA
5 Beds, 4 Baths, 4238 sf.
Terrific spacious home for Large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Janice Lee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215 sf.
넓은 공간, 아름다운 실내 구조
살기 좋고 우수한 학군
이현주 401-935-3397



\$725,000
Brookline, MA
2 Beds, 2 Baths, 1523 sf.
Near BU, Coolidge Corner
Sunny 2 bedrooms
Jason Jeon 617-642-5670



\$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



\$359,000
Billerica, MA
3 beds, 2.5 baths, 2694 sf.
Near Commuter Rail
Nice neighborhood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렌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부동산 관련 서비스 그룹 / 2004년 1월 / 1000여 명의 에이전트 /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 / 200여 개의 도시 / 전국 및 해외 서비스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줄 승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Restaurant	SAT Academy	Business Consulting	Restaurant
------------	-------------	---------------------	------------



\$799,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50,000
Brookline, MA
SAT Tutoring Academy
Near many good schools
Close to Route 9 and I-95
Julie H. Lee 401-935-3397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78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Dry Cleaner	Full Plant Cleaner	Restaurant	Deli
-------------	--------------------	------------	------



\$180,000
Salem, MA
Downtown Salem area
Well established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아파트, 콘도 단지 주변
Anna Jung 617-780-1675



\$179,000
Nashua, NH
One of the reputable
Asian cuisines in Nashua, NH
Jason Jeon 617-642-5670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Cafe	Deli	Grocery	Jewelry Business
------	------	---------	------------------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99,900
Chelsea, MA
Amazing Deli with
lottery, cigarette, ATM for sale
Anna Jung 617-780-1675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74,990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Full Plant Cleaner	Convenience Store	병원 건물 렌트
------------	--------------------	-------------------	----------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0, No.47 November 28 2014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64

치킨 좋아하는 사람 모여라

크레이브(Crave)

75 Kneeland Street, Boston, MA 02111
617-338-0188
http://www.cravemadforchicken.com/

선 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치느님’ 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듯하다. 보기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도는 매콤하고 바삭바삭한 한국식 치킨은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다. 오히려 한국인보다 더 맵게 먹는 사람도 많다고 하니 신기할 따름이다.

뉴욕 한인타운(K-Town)에 1호점을 두고 있는 한국식 치킨전문점 크레이브(Crave)는 지난 7월 차이나타운에 첫 체인점을 열었다. 보스톤 지점의 수창(Sue Cheng) 사장은 “뉴욕에서 친구들과 맛본 크레이브의 치킨 맛을 잊을 수 없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보스톤에 크레이브를 소개하고 싶었다” 고 전했다.

크레이브의 치킨을 처음 선보인 7월 21일, 예상치 못한 인파가 몰려 닭 재료가 떨어졌다고 한다. 실제로 20일 문을 닫고 21일에 다시 장사를 시작해야 했다는 창 사장은 “인근 터프츠 대학 학생과 관계자들, 차이나 타운 주민들, 관광객 등 굉장히 많은 이웃들이 크레이브를 찾는다” 고 말했다.

크레이브의 치킨은 맵지 않은 매드(Mad)과 매콤한 앵그리(Angry) 맛이 기본이다. 이 외에도 버팔로, 바비큐 맛 등이 있으며 창 사장이 하바네로 고추

로 직접 개발한 퓨리어스(Furious)도 있다.

냉동된 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크레이브는 펜실베이니아 주의 닭 농장에서 직접 재료를 공수한다. 냉동제품을 튀겨내는 치킨집과는 달리 육즙이 그대로 남아있고 신선한 맛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 매콤한 앵그리 날개를 한 입 베어 무니 과연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것이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만하다.

보스톤 크레이브점은 치킨에만 중점을 두기보다 다양한 퓨전요리가 어우러진 메뉴를 개편 중에 있다고 전했다. 12월에는 비빔밥, 잡채 등의 한식 메뉴도 선보일 예정이며 현재는 창의적이고 맛갈스러운 스시 요리가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다.

후카야키는 손바닥만한 조개 껍데기 위에 관자와 게살, 문어 등을 잘게 썰어 구운 에피타이저다. 매콤한 마요네즈 소스와 치즈가 곁들여진 이 요리는 작은 불판에 올려져 나온다. 창 사장 말로는 보글보글

끓은 요리 앞에서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는데 단연 시각과 청각, 미각을 자극하는 에피타이저다.

튜나 덤플링(Tuna Dumpling)은 게살과 조갯살을 참치로싼 메뉴로 달짝지근한 간장소스에 담겨



나온다. 연어를 더 선호하는 동양계 손님들을 위해 곧 연어 덤플링도 출시될 예정이

라고 한다.

창 사장은 “친구 집에 놀러 온 듯한 느낌을 주는 ‘이웃집 식당’ 이 되고 싶다. 그저 편하게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 며 소탈하게 웃었다.

dyoo9146@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형락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세청	617-536-7469
남서문의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00-235-6426
백배지역	888-477-6721
보스턴공립학교	617-345-7958
보스턴수도	617-635-9000
보스턴시청	617-989-7000
보스턴총영사관	617-635-4500
사우스익	617-641-2830
사회보장국	617-345-7958
성폭행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시간문의	617-492-8300
아동보호	617-637-123
아동학대	617-748-2000
알고음/마약	800-792-5200
여성학대	617-445-1500
운전면허	617-248-0922
펠러버	617-351-4500
자원봉사	617-348-8500
적십자	800-522-8086
전화신청 (Verizon)	800-564-1234
전화교정신청 (Verizon)	800-941-9900
텍스	617-555-1515
AAA	617-343-4475
FBI	800-222-4357
MBTA	617-741-5533
NSTAR가스	800-392-6100
NSTAR 전기	800-572-9300
RCN케이블TV/전화	800-592-2000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철학자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운수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617-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대화(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베냐민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레시안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도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978-869-2596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톤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777-1800
보스톤서부장로교회	978-578-6987
보스톤 성결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령교회	781-275-8233
보스톤 소망교회	781-396-1004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978-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리살림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이 벨렐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우시교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종은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버드 한인교회	617-770-2755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시간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대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금융/투자

인덱펀드(투영목)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킴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티케이헤어디자인	781-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헤어스타일	617-818-5596

물상 대여

해피물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650-665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광(0)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신경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양미아힐리리카운셀링	508-728-0832
인디안힐리리카운셀링	617-738-9622
가족치료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신건강전문	978-688-6999
주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퍼럴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파스	617-871-1482
퀸지치과	617-471-2184
퍼스트치이덴탈그룹	781-273-2233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메이치과	781-894-1127
아이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현비치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11/28
벌링턴에 위치한 일식집(산수갑산)에서 주방보조 구함 (풀타임)
T. 718-690-00891

4989 부동산매매는 —————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11/28
청기와식당에서 웨이트레스 경험자 구합니다. (풀타임/파트타임)
T. 781-424-2872

12/12
미용가위, 애견가위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가위 가는 기술 전수합니다.
T. 917-513-7771

12/12
세탁소 스퍼터 프레스 구함
초보자 환영, Natick
T. 509-655-5004

12/19
워터타운 새로 오픈한 네일가게 자격증 소지자 구합니다.
T. 857-266-4175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10/31
세탁소 팝니다. 부유한 동네 Drop-Store 관심있는 분 연락 바람
T. 857-636-2611

FIXALL

바이러스 치료, 데이터 백업/복구
맥OS/윈도우/리눅스 설치/복구
각종 컴퓨터 수리 및 업그레이드
홈 네트워크 설치
TEL 617-710-4952

12/19
N [매 매] 세탁소매매
건물+세탁소(33만불)
.9년간 같은 주인경영
.경쟁자 없음
.살기좋은 백인동네
.미독립기념일 1주간 문닫고 휴가
.은퇴관계로 매매
.Chatsworth, GA(Dalton근방)
T. 706-980-9510 Mr Kim

11/28
N [매 매]
필리 치즈스테이크 샌드위치 가게
연매출 :\$340,000
순이익 :\$160,000 이상
매매가 :\$160,000
루지애나 주 뉴올리언즈 지역
C. 504-729-8688
T. 985-646-1771

2/27
N [매 매]
한국마켓(미시시피)
성업중인 마켓, 사정상 좋은가격에 급매합니다.
사실분 연락 바랍니다.
T. 512-775-6429

11/28
N [구인]
노스 다코타 인테리어 휘니시 기술자 구합니다.
인테리어 휘니시, 케비넷도어, 트림, 유 경험자 환영.
미네소타&노스다코다 지역 포함.
T. 952-292-6090

10/17
N [구인]
한식당주방장과 부주방장 구합니다
작은 동양 마켓안 한식당 주방장과 보조 각 1명씩 더 모집니다
현재 주방장 보조 서빙 2명 디시워셔 하시는분 일하고 있음
식당테이블 17개 주 6일 근무, 주일은 쉽니다(인수가능)
Warner Robins GA I-75 EXIT 160근처
T. 615-714-8016

12/19
N [구인]
텍사스 샌안토니오 초가집 가라오케에서 호스테스 구함
숙식제공, 라이드 됩니다.
T. 210-803-5194

10/17
N [호텔직원구인]
사바나지역(Savannah, GA)
.룸서비스(여자)
.하우스맨(남자)
.오버나이트서비스맨(남자)
.게스트서비스맨(남자)
.전직원 숙박제공
시간당 \$9.50부터
주 40시간제
T. 678-689-7751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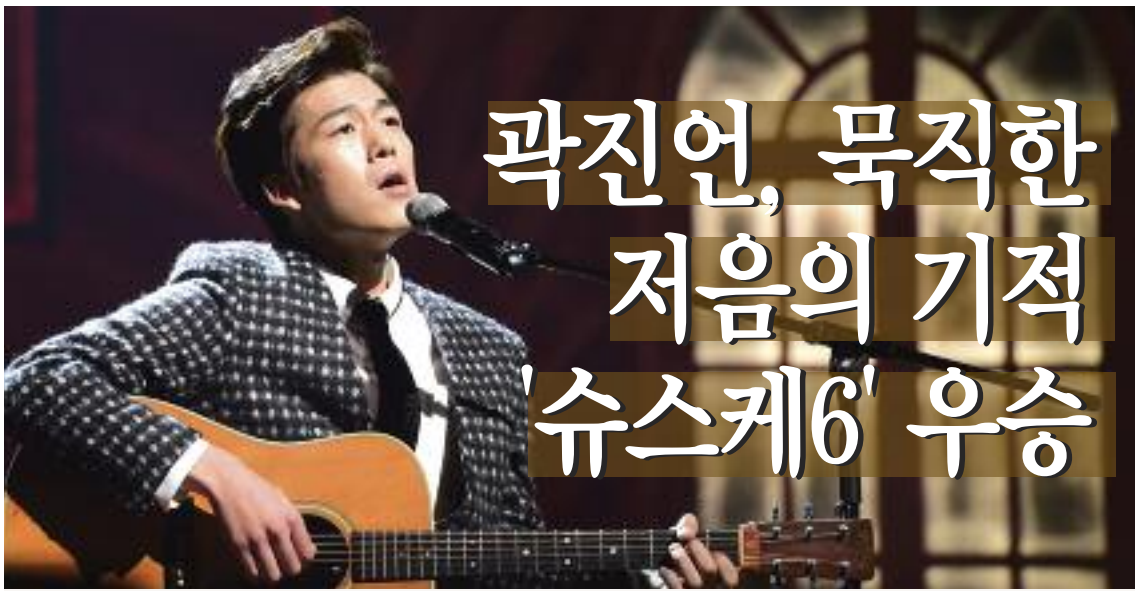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곽진연, 묵직한 저음의 기적 '슈스케6' 우승

(서울=뉴스1스포츠) 권현진 기자 =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의 꿈이 포근하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눠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대에게 제일 먼저 자랑 할게요” 예쁜 나이 스물네 살. 거창한 수상소감, 환한 미소 대신, 곽진연은 적은 말수와 눈물로 우승의 기쁨을 대신했다. 5억원의 출연 상금이 걸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는 침착했다. 동료들이 행가래를 치자 그때 잠깐 미소를 보인 것이 전부였다.

곽진연이 21일 밤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Mnet '슈퍼스타K6' 생방송 결승전 무대에서 '절친' 이자 경쟁자 김필

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첫 번째 대결 무대인 자유곡 미션에서 곽진연은 조용필의 '단발머리'를 경쾌한 스타일로 불러 따뜻한 감성을 강조했다. 김필은 마이클 잭슨의 '맨 인 더 미러' (Man in the Mirror)를 노련하게 소화했다. 이어진 자작곡 미션에서 곽진연은 합숙 기간 중 작곡한 '자랑'이라는 곡을 선보였다. 통기타 반주 하나와 묵직한 저음으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윤종신 심사위원은 “늘 고대하고 꿈꿔왔던 무대였다. 곽진연은 그냥 자기를 노래한다”고 칭찬했다. 윤종신에 이어 이승철, 백지영 심사위원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연달아 세 명의 심사위원에게 만점에 가까운 99점 이

라는 역대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김필은 자신의 고민과 이야기를 세련된 모던록 스타일에 담아낸 '필즈 송' (Feel's Song)으로 특별한 울림을 전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결승 대결이 모두 끝난 뒤 우승자가 발표됐다. 바로 '곽진연'. 남다른 감성의 곽진연이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자신만의 스타일로 대중과 소통하는 싱어송라이터가 되겠다”는 그의 꿈도 현실이 됐다. 곽진연은 “정말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며 우승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지금 가장 누가 보고 싶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한참을 생각하더니 “동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생이 이 무대를 보러 왔는데... 잘하자”라는 짝막한 소감과 함께 눈물로 우승의 소감을 대신했다.

곽진연, 이날 그는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묵직한 저음으로 기적을 노래했다. 한편 곽진연은 우승 상금 5억을 받는 것을 비롯해 12월 3일 홍콩에서 열리는 '2014 MAMA' 무대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rmj337@news1.kr



십센치, 유희열에 불평 "아빠, 저희한테 어떻게 이래요?"

(서울=뉴스1스포츠) 박건욱 기자 = 인디듀오 십센치(10cm)와 유희열의 인증샷이 공개됐다. 십센치는 지난 25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10cm X 유희열의 스케치북, 드디어 만난 아버지와 아들, 십센치와 토이(유희열)! 아빠, 저희한테 어떻게 이래요?”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잇몸미소를 보이고 있는 유희열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선 십센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멤버 윤철중은 미소와 함께 브이를 그리고 있으며 권정열은 유희열에게 빠친 듯 고개를 돌리고 있어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십센치와 유희열은 하루 간격으로 나란히 정규앨범을 발매하며 라이벌 구도를 이뤘다. 십센치는 지난 19일 2

년 만의 정규앨범 '3.0'을 발표했으며, 토이 유희열은 그 전날인 18일 7집 '다카포'를 발표했다. 앞서 십센치는 정규 3집 발매 기념 쇼케이스 현장에서 “아버지처럼 여기는 유희열이 올해는 신보를 못 낸다고 해서 맘 놓고 음악 준비했는데 우리보다 하루 먼저 나왔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불평 섞인 컴백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십센치는 오는 12월 6일 할리우드 배우 잭블랙이 속한 밴드 테네시 서스디(Tenacious D)의 내한공연의 오프닝을 장식한다.

kun1112@news1.kr

적수 없는 박효신, '해피 투게더' 11개 음원차트 1위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가수 박효신의 신곡 '해피 투게더'가 국내 11개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지난 24일 정오 공개된 박효신의 신곡 '해피 투게더'는 공개 직후 멜론, 엠넷뮤직, 벅스, 소리바다, 올레뮤직, 삼성뮤직, 싸이월드뮤직, 네이버뮤직, 다음뮤직, 지니, 몽키3등 11개 음원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를 모두 휩쓸었다. 같은 날 자정 기준 실시간 이용량이 최고 정점에 이르는 모습도 6차례나 보이며 인기를 실감케 했다.

'해피 투게더'는 박효신 정규 7집 앨범 연작 중 '야생화'에 이은 두번째 곡이다. 소박한 일상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내용으로, 숨겨진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기회가 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응원하는 내용의 노래다. 박효신은 오는 12월12일부터 박효신 15주년 기념 라이브 투어 '해피 투게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투어를 시작할 예정이다.

ppbn@news1.kr



제이슨 므라즈 'K팝스타4' 이진아 극찬 "놀라운 실력이다"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세계적인 뮤지션 제이슨 므라즈가 SBS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4'의 참가자 이진아를 극찬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콘서트 일정으로 내한한 제이슨 므라즈는 지난 20일 'K팝스타4' 참가자들이 모인 연습실을 깜짝 방문해 격려했다. 제이슨 므라즈는 지난 23일 'K팝스타4' 첫 방송 말미 등장해 주목을 받은 참가자 이진아의 무대를 즉석에서 들었다. 이진아는 제이슨 므라즈 앞에서 자작곡 '시간이 천천히'를 노래했다. 제이슨 므라즈는 이진아의 음악에 대해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재즈 뮤지션인 마이클 프랭크스의 음악만큼 놀라웠다"며 "재즈, 소울, 펑크가 한데

결합된 정말 독창적이고 멋진 음악"이라고 극찬했다. 제이슨 므라즈는 이후 이진아의 음악에 관해 이것저것 물어보며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제이슨 므라즈는 또한 참가자들 앞에서 자신의 히트곡 'I'm yours'를 열창하기도 했으며 자신이 처음 음악을 시작했던 계기와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기타에 자필 사인도 해주었다. 'K팝스타4' 제작진 측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티스트가 직접 전해주는 다정한 조언에 도전자들은 꿈을 향한 의지와 열정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khe45678@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4년 11월 17일 ~ 11월 23일

1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32.2%



2위 KBS1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25.8%

3위 MBC 주말특별기획 전설의 마녀 21.7%

- 4 MBC 주말드라마(장미빛연인들) 17.2%
- 5 KBS2 일일드라마(달콤한비밀) 17.1%
- 6 KBS1 KBS9시뉴스 17.0%
- 7 KBS2 해피선데이 15.7%
- 8 KBS1 가요무대 15.1%
- 9 SBS 아침연속극(청담동스캔들) 15.0%
- 10 KBS2 개그콘서트 14.0%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4.99에 볼 수 있는 앤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음원 차트 순위 10

- 01 세 사람 토이
- 02 광화문에서 규현
- 03 나는 달라 HI SUHYUN
- 04 내가 그리웠니 MC 몽
- 05 U & I 토이
- 06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 MC 몽
- 07 GOOD BOY GD X TAEYANG
- 08 헤븐 엔딩 에픽 하이
- 09 12시 30분 비스트
- 10 사뿐사뿐 AOA

숫자 퍼즐 (Sudoku)

								8
	1	9	7	3				
4	2		5		8		3	
		8			3			9
7	4						6	3
3			8			7		
	3		6		7		5	1
				2	1	3	8	
9								

11월 30일 - 12월 6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마침표를 찍어야

● 운수: 드디어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생각지도 않았던 돈까지 들어오면서 일의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큰 무리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새로운 사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혼자서 있을 때는 물론이고 문득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3, 6일 길일. 1, 5일 주의.

토끼띠 | 좋은 소식을

● 운수: 서로 원할 수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문제 해결 능력이 돋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계약이나 매매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던 일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 애정: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속상했던 것을 다 풀 수 있을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 6일 길일. 1, 4일 주의.

말띠 |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 운수: 가벼운 해프닝으로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을 두고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만 쌓이게 할 뿐입니다. ● 금전: 저금만 돈을 버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 애정: 너무 완벽한 것도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 5일 길일. 4, 6일 주의.

닭띠 | 자기조절력이 꼭 필요한

● 운수: 너무 먼 미래까지 앞서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코앞에 일에만 신경을 쓰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 금전: 자기조절력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충동적으로 구매하다가 후회만 남기는 지출을 하게 됩니다. ● 애정: 불같이 뜨거운 열병 같은 사랑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알게 모르게 드는 정이 더 헤어 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30, 3일 길일. 1, 4일 주의.

소띠 |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 운수: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말할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 애정: 편안한 마음이 들다보니 아직은 특별한 사이가 아닌 사람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털어놓게 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30, 4일 길일. 2, 5일 주의.

용띠 |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 운수: 잘못된 상식으로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금전: 당장 큰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매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 애정: 좋은 관계는 자신에게 묘약이 되지만 나쁜 관계는 독약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연은 함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3, 4일 길일. 5, 6일 주의.

양띠 | 큰 행복감을 줄

● 운수: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힐링도 될 것입니다. ● 금전: 직원이 고객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직원관리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 애정: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큰 행복감을 줄 것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1, 6일 길일. 2, 5일 주의.

개띠 |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 운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때입니다. ● 금전: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믿음직한 사람에게 털어놓고 의견을 해보거나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 애정: 가족보다는 일을 더 우선시 하는 것 같은 모습 때문에 배우자에게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 3일 길일. 30, 2일 주의.

범띠 |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 운수: 힘들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힘든 시기가 오니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 금전: 아는 척이나 잘난 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처신을 해야 사람을 얻고 이득도 따릅니다. ● 애정: 외로움이 깊어지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겠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 5일 길일. 3, 6일 주의.

뱀띠 | 그저 믿거나 하는 마음으로

● 운수: 불필요한 말과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고자 하는 일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전: 돈을 앞에 두고 욕심을 내지 않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믿거나 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돈을 맡긴다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 애정: 감정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때입니다. 억울하다거나 분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 4일 길일. 3, 6일 주의.

원숭이띠 |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 운수: 아무리 좋은 약도 지나치면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남용하면 진짜 아플 때 써도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지금은 당장 크게 돌아오는 이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애정: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로 인해서 듣는 사람은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4, 5일 길일. 30, 6일 주의.

돼지띠 |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을

● 운수: 후회할 줄 아무 쪽에도 소용이 없는 일은 이제 그만 손에서 놓아버리고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을 하세요. ● 금전: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나갈 일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금방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 애정: 자신도 모르게 계산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연인 간에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 5일 길일. 30, 6일 주의.

강예빈, 타이트한 의상 입고 몸매 과시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팀 기자 = 방송인 강예빈이 광고 촬영장에서 건강미를 뽐냈다.

강예빈은 2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광고 촬영 중입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설레네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속 강예빈은 건강미 넘치는 몸매로 민소매에 타이트한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특히 광고 사진이 아닌 무보정 현장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는 탄탄한 몸매와 물오른 미모가 돋보인다.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건강한 매력에 푹 빠질 거 같다”, “이게 무보정이라고? 믿을 수 없다”, “강예빈 같은 건강미는 타고 나아 하나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예빈은 KBS 2TV 드라마 '왕가네 식구들' 출연 이후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star@news1.kr



김병만, 중국판 '개콘' 출연

대륙서 달인 선보인다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개그맨 김병만이 중국 상해 동방위성TV '개그생활대폭소'에 출연한다.

KBS2 '개그콘서트'는 최근 중국의 미디어 그룹인 상하이동방미디어유한공사 산하 채널인 상해 동방위성TV와 공동 제작을 체결해 중국판 개그콘서트를 선보일 것을 알렸다. '개그콘서트' 장수 코너이자 많은 사랑을 받아 왔던 '달인'의 주축 멤버인 김병만은 중국판 개그콘서트인 '개그생활대폭소'에서 달인을 중국 현지에 맞게 기획하고 직접 출연해 중국 시청자들과 만나게 됐다.

김병만은 지난 주 중국에서 있었던 첫 녹화에서 '격파의 달인'과 '트램플린의 달인'을 선보여 녹화 당일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그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중국 현지 개그맨들과 남다른 팀워크를 이끌어내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중국 현지 인터뷰와 기타 일정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는 후문이다.

평소 다재 다능하면서도 열정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만의 에능코드를 구축해 온 김병만은 이번 '개그생활대폭소'를 통해 한국 개그맨으로는 처음으로 해외판 고정 코너에 출연하게 됐다. 새로운 활동 영역을 개척해 이후 행보에 대해서도 업계의 큰 관심을 모으게 될 전망이다.

중국판 개그콘서트 '개그생활대폭소'는 내년 초 동방위성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ppbn@news1.kr



윤상현 메이비 결혼 앞두고 커플사진 공개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기자 = 윤상현 메이비 결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이 공개됐다.

윤상현의 소속사 MGB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5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달달 커플 윤상현, 메이비 씨의 깜짝 셀카가 도착했습니다. 두 분의 앞날에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윤상현 메이비 예비부부는 편안한 차림으로 선글라스를 쓴 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윤상현의 애

완견 만석이와도 함께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며 알콩달콩 행복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앞서 윤상현은 24일 방송된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메이비와 내년 초 결혼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을 통해 "앞으로도 같이 강아지 키우고 앞마당에서 같이 아이도 낳고 헬기도 같이 날리러 다니자"고 메이비를 향해 수줍게 고백했다.

한편 윤상현과 메이비는 지난 4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가졌으며 최근 양가 상견

례를 마치고 내년 2월 8일 결혼식을 올린다.

star@news1.kr



고창석 "하버드 출신 형은 변호사"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고창석이 하버드를 나온 형에 대해 언급했다.

고창석은 26일 밤 11시15분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라스)에서 하버드 출신 형에 대해 "형님은 변호사다"고 말했다.

고창석은 "형님이 잘나서 부담스럽지 않냐고 하는데 어릴 땐 구박당어리 같은 느낌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부모님 기대를 한껏 받고 자란 우리 형의 부담감이 더 큰 것 같다. 나에게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고 했다.

그는 이어 "제일 잘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형수님이다"고 형수에 대한 속 깊은 마음을 드러내 감탄을 자아냈다.

ppbn@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김씨의 뿌리(23)〉

훈족과 신라, 가야의 친연성 (2)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서수형 토기(AD 5세기) 잔등이에 동북(미추왕릉 지구 출토)

서기 375년에 전유럽을 삼시간에 석권한 훈족의 원류가 한반도의 신라와 가야라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많은 사람들은 교통수단을 말에만 의존하였던 4~5세기 때 한반도에서 7천~8천 km나 떨어진 머나먼 곳을 어떻게 공격하겠느냐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훈족이 한민족의 일파라는 주장은 한민족이 유럽을 공격했다는 것이 아니고 훈족과 한민족의 일부가 뿌리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타당한 말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250여년 전, 조선의 영정조 시기에 유명한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 : 1737~1794)은 동쪽으로부터 갑자기 나타난 훈족의 원류로 아무르강(흑룡강)과 한반도 사이에 산재한 흉노족 일파를 거론하였다. 에드워드 기번은 이들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훈족이 되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촉발시켰다고 기록하였다. (이종호 박사)

일찍이 단재 신채호(1880~1936) 선생께서 북방 기마 민족과 한민족과의 관계를 조선 상고사를 통해 기고한 바가 있었다.

‘여진, 선비, 몽골, 흉노(훈) 등은 본래 우리 한민족의 동족이며 흉노는 조선의 속민이었다’고 하면서 ‘기마민족 국가인 고조선에서 조

선족이 분화하여 조선, 선비, 여진, 몽골, 흉노 등이 되는데 특히 흉노족이 흩어져 돌궐, 헝가리, 터키, 핀란드 등의 종족이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는 또한 ‘북흉노가 흑해 부근으로 들어가서 동고트를 압박하고 그로 인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촉발시켰다’고 기록하였는데, 이로 인해 단재 신채호 선생은 ‘한민족이 오랑캐냐’는 반박을 받아야만 했고 그 이후 우리는 흉노나 훈족에 대한 연구나 기록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1983 프랑스의 모리스 부비에 아잠(Maurice Bouvier-Ajam)은 “아틸라, 신의 정벌”에서 더욱 놀라운 자료를 발표하였다.

그는 한반도에서 유럽에 이르는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흉노 지역, 파미르 고원, 카스피해, 볼가강, 흑해를 거쳐 다뉴브 강에 도달하는 코스를 제시하며 이동경로 이름도 코훈 로드(Korea-Hun Road)라고까지 명명하였다. 그



아잠(AJAM)의 Korea-Hun Rd.



기마인물상(말 탄 기사상 : 국보 91호)

는 한국인들이 유럽으로 서천하게 된 이유는 인구가 증가하던 차에 중국의 압력을 받아 만주를 거쳐 흉노 지역을 넘어 유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특히 인종적으로 훈족과 한민족은 전혀 다름이 없고, 전투에서 용감하고 끈질기며 신속하다고 기록하였다.

아잠은 두 민족이 사용한 도구들이 유사하다고 하며 특히 1924년 경주시 대릉원 노동동에 있는 금령총(金鈴塚)에서 발견된 기마 인물상(국보 91호)의 말 등에 실린 동북(cauldron)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였다.

동북은 스키타이, 흉노와 함께 BC8~7세기에 나타나서 AD5~6세기 흉노, 훈의 소멸과 함께 사라졌는데 흉노, 훈이 지나간 이동경로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종호 박사)

한반도에서는 평양이나 김해에서 모두 5개의 동북이 발견

되었다. 또 경주 금령총에서 발굴된 기마 인물상처럼 토기 형태로도 발견되는데 경주 미추왕릉 지구에서 발견된 서수형 토기나 가야, 신라에서 오리나 기러기 토기잔 등에 동북 모양으로 꾸민 토용도 이런 범주에 든다고 생각된다.

알타이 민족은 옛부터 나무를 숭배왔다. 오래되고 큰 나무는 신격화해서 정성 들여 모셔왔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금관에 사슴뿔 올림 장식과 함께 나무 올림 장식을 올린 것은 나무 숭배 사상의 표현인 것이다. 훈족, 흉노족의 상징물인 동북에 나무 장식 문양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훈족이 한민족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훈족이 한반도에서 출발하여 유럽에 도달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첫째로 한반도와 유럽은 너무나 먼 거리다. 단시일에 수많은 병사들이 이동하기에는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당시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하거나,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 치세 때로 중국으로부터의 압박은 없었지만 선비족인 모용씨의 후연과 역시 선비족 탁발씨의 북위와 물고 물리는 전쟁중에 있었고, 백제는 광개토 대왕에게 항복한 바 있어 국운이 쇠약할 때였다.

신라는 미구에 가야, 왜 연합군에게 침공을 당할 즈음으로 한반도 네 나라에서 군사를 빼서 한 곳에서 전쟁을 벌일 여유가 없었다.

한민족과 훈족은 별개의 그룹이다. 다만 두 민족이 뿌리가 같다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은 사실이다. 중앙대학교 생명과학과 이광호 교수는 두 민족간에 유전 인자의 유사성을 발표하고 있다.



오리형 동북토기(신라)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학업성적을 좌우하는 Academic Writing 향상 및 SSAT/ SAT/TOEFL 목표점수 달성

2014 추수감사절 학업 향상 프로그램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23일과 27일은 제외)

오전 9:30 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강좌



SAT

- Vocabulary
- Grammar
- Critical Reading
- Essay



TOEFL



ETS Official Test
& Teaching Center

*개별과목 선택가능하며, 선택에 따라 학비가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TOEFL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shortcut만 찾다 오히려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던데, 저는 THAS의 특별한 TOEFL 수업방식을 바탕으로 연습한 덕분에 TOEFL 고득점은 물론 학업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 R.Kim (TAHS Student)
Johns Hopkins 대학 입학



“For this important time in a student’s career, we provide the edge to get ahead and master the skills necessary for these exams. I really enjoy teaching and developing the students’ academic abilities, and I feel that it really does make a difference.”

- William Jameson (TAHS instructor)
Harvard University



“TAHS helped me to gain the greatest result in a very short time. It was not only a test preparation institute, but moreover was my mentor, who encouraged me and brought confidence in me. Above all those things, the best thing about the academy was that it wasn’t just a place for me to go and study, but also was a place where I felt cared regarding my happiness and future. I believe it was an excellent choice in my life that I chose to take classes at the Academy at Harvard square.”

- V. Maeng (TAHS Student) Wellesley College



The Academy
at Harvard Square

617-492-2722



하버드역에서 1분
30 JFK ST, 3RD FL., CAMBRIDGE MA 02138
www.theAcademy.ac



“매주 2만여명의 독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보스톤코리아 이메일 발송 서비스

-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보기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어 보스톤 코리아가 매주 신문 발행과 함께 이메일로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새로운 소식을 전세계 어디에서나 웹사이트에서 또는 지면보기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소식, 깔끔한 디자인 새로운 소식을 깔끔한 디자인으로 전해드립니다. 컴퓨터는 물론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저희 보스톤코리아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이안 2014도 볼 수 있어 보스톤 및 미주 생활 가이드로 교육에서 의료 그리고 각종 생활정보를 eBook 또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보기가 어려우시다면?
이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세요!
픽업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스톤코리아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이메일 보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신영의 **세상 스케치**

475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인천의 '소래습지공원'과 '소래포구'를 둘러보며...

한국을 방문하면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은 늘 하지만, 이런저런 바쁜 일정에 쫓기다 보면 생각처럼 그리 쉽게 찾아지지 않던 곳이었다. 마침 시부모님께서 한국에 와 계신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사시는 곳이 바로 인천 송도인 것이다. 이번에는 시댁에 들렀다가 시간을 내어 꼭 한번 가보리라 다짐을 했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 며칠 후 시부모님 댁을 찾게 되었다. 언제나처럼 시어머님께서서는 며느리 자식을 위해 맛난 반찬에 미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과일들을 가득 챙겨주신다. 그 정성에 고마우면서도 제대로 자식 노릇을 못 하는 것 같아 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인천 송도는 인천 앞바다를 메워 신도시 아파트를 지어 만든 곳이다. 여기저기 높이 솟아있는 고층 건물들을 올려다보며 참으로 신기했다. 시부모님께서 지난해까지는 낮은 층수인 3층에 살고 계셨는데 올 봄에 새 아파트로 이사하셨다. 사실, 아파트 42층짜리 건물에서 3층에 살고 계시다는 말씀에 팔순이 다 되신 노부모님 두 분이 마음으로는 내심 염려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젊은 며느리 자식 혼자의 생각이었다. 별 하나 없는 캄

캄한 밤중에 36층에서 바라다보이는 주변의 야경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웠다. 휴내를 좋아해 아파트를 밀어내던 마음에서 한 점의 요동이 치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 주변을 돌아보고 싶어 두 시간 남짓 산책을 하고 돌아왔다. 주변을 둘러보는 내내 여기저기에는 끊이지 않는 공사로 분주한 현장 인력자들의 바쁜 움직임과 함께 중장비들의 소리가 들린다. 이 도시에서는 아직 높이 솟아오르지 못한 건물들이 오를 준비를 하며 저마다 제 모습을 선보이며 프랭카드를 벽마다 붙여놓고 있는 것이다. 높이 솟은 고층 건물을 올려다보며 사람의 생각은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재주는 어디까지일까 하고 잠시 생각에 머물렀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간편해서 좋은 편리함이 주는 득과 실은 얼마 만큼에 와 있는 것일까.

그리고 다음 날에는 소래 '습지공원과 소금창고'를 구경하고 싶다는 막내며느리를 위해 소래습지생태공원 앞까지 시아버님께서 손수 운전으로 태워다 주셨다. 그리고 몇 시간을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혼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들 짝

지어 공원을 걷는 이들도 많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즐기는 이들도 꽤 많았다. 공원을 들어서는 입구에 자전거를 빌려주는 센터를 보긴 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중년이 훌쩍 넘었을 연세의 분들도 자전거를 타며 즐기는 모습이 참으로 신선해 보여 좋았다.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 어찌 세상의 나이와 상관있을까 말이다.

인천의 소래를 말하자면 우선 지나칠 수 없는 곳이 염전이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금이지 않던가. 무엇보다도 먼저 소래 염전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일찍이 주안 소래 남동 등 염전지대에서 천일염이 성행하였으며, 한국 최초의 천일염 개척의 선구자이면서 한때 최대의 소금 생산지였다. 소래염전은 일제시대 때부터 염전으로 개발되어 소래 갯골로 들어오는 바닷물을 이용하여 소금을 생산하고 그 소금을 소래포구를 통하여 경인선 협궤열차나 배로 인천항으로 옮겨져 일본으로 보내졌다. 여기서 난 소금은 생필수품만이 아닌 일제의 전쟁을 위한 화약 제조용 군수품으로도 쓰여졌다. 1970년대에는 전국 최대 천일염 생산지였으며 현재는 과거의 명성을 잃어 폐허로

남아 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이 들어서서 새로운 운명을 맞고 있다."

"이곳은 일본사람들이 염전을 만든 후 1996년까지 소금을 만들었던 곳이다. 염전 너머로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이 들어와 갯벌을 이루던 지역으로, 생산되는 소금을 나르기 위하여 배가 들어왔던 곳이라고 한다. 소금의 어원은 '소(牛)'나 '금(金)'처럼 귀한 물건 또는 "작은 금"(小金)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자인 염(鹽)이라는 단어는 소금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뜻한다. Salt의 어원은 라틴어의 [sal](소금)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으며, 건강의 여신 salus, salary, salade와 같은 파생어를 만들었다."(출처: 동부공원사업소)

인천의 소래습지공원과 소래포구를 둘러보며 일본감정기의 아픈 우리의 역사를 잠시 엿볼 수 있어 가슴이 시려오기도 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말해주듯 목조건물이 삭아 주저앉은 소금 창고의 건물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었지만, 또한 소래습지공원을 보면서 또한 희망을 보니 한결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블랙커피에 얽힌 사연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블랙커피는 쓰다. 흥삼시럽과 맛이 다르다. 그 쓴걸 왜 마시냐고? 씹싸레하고 진한 향내가 입안을 감싸고, 코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블랙커피는 갓 내려야만 하고, 뜨거워야 한다. 훌훌 식혀가며 훌쩍훌쩍 마셔야 제맛이란 말이다. 내린지 오래되어, 아로마 향내를 잃었고 식어버렸다면 이미 커피는 아니다. 그저 카페인 섞인 씹싸레한 검정 음료인게다. 내가 무슨 커피마니아는 아니다.

왕년엔 다방커피만 마실 줄 알았다. 출처와 정체가 불분명한 커피에 크림과 설탕을 넣어 준 커피 말이다. 아니면 맥스웰 인스턴트 커피를 난로 위에서 끓던 더운 물에 타줬던 그 커피만 커피인줄 알았다는 거다. 커피는 거의 핫코코 수준이었으니, 매우 뜨겁고 무척 달았다. 커피에 설탕과 크림을 넣은 건지, 설탕과 크림 시럽에 커피를 살짝 엮은 건지. 주종관계와 갑

을관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커피는 오직 달아야 하고, 곱죽해야 한다고 믿고 마셨다.

역시 다방커피는 커피와 설탕과 크림(?)을 모두 넣어야 한다. 물도 뜨거워야 한다. 맛있게 먹으려면, 다 갖춰져야 하는게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다방커피가 아니다. 게다가 일회용 컵보다는 머그에 넘치도록 담아 마시면 더욱 맛있게 즐기려면 모두 다 갖춰 마셔야 한다. 내 입맛이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이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차잔, 산울림)

미국에 왔다. 커피 한잔이 25센트 할 적이다. 당연히 설탕에 크림을 듬뿍 넣어 마셨다. 찜뚱한 시럽성 다방커피인 게다. 다방커피는 인스턴트 커피와 설탕과 크림이 있어야 한다. 커피가 없다면, 아예 이야기가 성립할 수 없다만 말이다. 문제는 연구실에서였다. 연구실에선 거의 한 순간도 삼박자를 모두 갖춰진 적이 없었다.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였는데, 설탕이든지 아니면 크림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둘 다 아예 없든지. 그나마 인스턴트 커피는 항상 있었으니, 그냥 물 끓여 블랙으로 마셨다. 차츰 입이 블랙커피에 맞추기 시작했다. 먹다 보니, 그 맛도 과히 나쁘지 않았다. 어느 순간에 쓴 뒷맛이 다방커피의 들쭉한 뒷맛보다 깔끔했던 거다.

인생에 언제 삼박자가 모두 갖춰진 적이 있던가. 인생은 다방커피마냥 모두를 온전히 갖춰진 순간을 허락치 않았다. 부족한 그것을 채우기위해 허덕이며 살아오지 않았던가. 이제는 없으면 없는대로, 있다면 있는대로 그냥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 내가 세상과 인생에 맞춰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말이다. 내 입맛을 블랙커피에 맞추듯 말이다. 세상과 인생을 바꿀 힘은 내게는 없다. 그럴 생각도 의지도 없다. 하긴 인생은 뭐가 한두 개 빠져 있다고, 진공으로 남겨두지도 않는다.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듯 싶다. 설탕 대신 'Sweet' n 'Low' 를 넣듯 말이다. 대신 순전한 다방커피 맛은 아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영길 목사 설교 중에서)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보스톤 가이드 앤 맵



이제 미국과 중국 고객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이 곧 출간됩니다. 이 가이드 앤 맵은 미국 및 중국 학생, 관광객 등을 타겟으로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등에 전격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내년 2월 발간하여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매출을 한단계 높여드릴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선정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베스트 업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안 고객들을 한국 업소로 불러들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선택이 내년 매출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p>보스톤코리아</p> <p>617.254.4654</p> <p>bostonkorean@hotmail.com</p>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58 망국의 기로에 선 조선의 무예(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구한말 국세가 기울어 지면서 우리는 외교와 국방만 잃은 것이 아니라 민족의 얼과 정신 문화도 함께 침식당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무예는 고도로 단련된 불굴정신과 높은 기상으로 잘 숙련되었기에 최정예 군사력의 원천인 관계로 철저히 말살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외세에 의해 뿌리가 잘려 나가기 전에 우리 무예의 지엽은 스스로 말라가고 있었다.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과 함께 그 모습을 나타내는 무예는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무예의 힘이 곧 왕국을 지탱하는 권력의 원천이었다. 뿐만 아니라 외세의 침입에 대하여 국제國體를 보존하는 방패가 되었고, 백성들의 유희로도 친숙하게 그들과 함께 숨쉬며 발전하였다. 고려시대를 거치면서는 맨손 무예인 수박도와 함께 마상무예가 절정을 이루어 무술武術 뿐만 아니라 병술兵術과 병합되어 삶이 무술이며 무예가 일상이었다.

조선시대로 들어 오면서 초기에는 강력한 무력으로 대마도 왜구와 북방의 여진족을 정벌하면서 국방의 임무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무인들을 적절히 등용하여 문무의 균형을 이루었다. 하지만 점차 유교儒敎문화

가 사회전반에 깊숙히 스며들어 뿌리를 내리면서 성리학性理學⁹⁵⁾의 많은 영향은 문치중심의 치세로 바뀌었고 자연히 무예의 가치는 경시되는 경향이 짙어졌다. 즉 유교적 체계를 갖춘 관료중심의 나라로 주자가례는 백성들의 기본적인 규범이 되었고, 충효사상이 강조된 선비사회는 경서 읽기에만 몰두하였으며, 무예를 비롯하여 무희, 유희 등의 모든 육체적인 활동을 멀리하면서 소위 '문약의 나라'로 전락되어 가고 있었다. 심지어 무예를 천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무예는 자연히 평민들이나 천민들이 많이 수련하는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조선 중기로 접어들면서 무예가 많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군사력의 약화로 외세의 침략이 잦아지면서 임진왜란이란 미증유의 전쟁을 초래하였다. 그 후 무예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으면서 '무예제보' 등의 무예서를 편찬하여 병사들을 훈련하였다. 이 '무예제보'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무예서이다. 그런 와중에서 곧이어 북쪽으로 부터의 침략인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막강한 군사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그리고 정조대에 와서는 무예서의 결정판인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여 관군을 훈련시키는 물론 일반 백성들에게도 많이 전파되어 무예의 꽃을 피웠다.

그리고 임진왜란 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중국이나 일본의 무예들이 조선의 무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의 장점을 취하여 우리의 고유 무예는 태권, 각희, 권법, 수박 등의 이름으로 더욱 발전을 하였다. 즉 수박은 몇 가지의 무예를 대표하는 일반명사로 쓰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고려 시대 때부터 있어온 수박을 비롯한 몇 종류의 무예가 조선으로 넘어 오면서도 그 가치가 중요히 인정되어 계속 수련되었다. 화포의 발명과 사병폐지로 군사적인 무술의 필요성은 줄어들었지만 무예의 필요성은 왕이나 왕족들의 근접경호 특성상 탁월한 기량을 가진 무인들을 필요로 했다. 왕조실록을 좀더 자세히 보면 세조대(세조13년, 1467년)를 들어 오면서 수박이란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수박, 즉 무예가 없어졌다기 보다는 다른 명칭이나 또는 문치중심으로 바뀌면서 왕조실록에 기록을 소홀히 한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조대에서 갑사나 방패를 선포할 때는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무예의 능력에 따라 선발하였다. 즉, 무예가 일반 백성들에게 널리 수련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임진왜란을 맞으면서 '권법'이란 용어가 등장한다. 선조 32년(1599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용어다. 이 용어는 중국의 무술을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말

처럼 쓰였고 당시에는 무예의 일반용어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점은 세조대에서 선조대까지 '수박'이라는 무예가 실록의 기록에 없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전통무예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전통무예, 그것도 왕의 근접 경호부터 일반백성들이 두루 수련하던 무예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기와 병술의 발달로 인한 전장에서 실용성이 줄어들었고, 성리학 이념으로 문약을 낳은 관료들의 문치중심이 무예를 잠시 역사의 전면에서 퇴장시켰을 뿐이다.

95) 유교의 주류 학파로 12세기에 남송의 주희(주자)가 창시자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주자학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고려말 14세기에 안향에 의해서 들어왔다. 조선이 개국하면서 국가의 통치이념이 되었고, 16세기에 동인의 이념적 기반이 된 이황의 퇴계학과 서인의 이념적 기반이 된 이이의 율곡학과 형성되면서 봉당의 정치는 도를 더했다. 실학은 퇴계학파의 분파인 남인(시파)과 율곡학파의 분파인 노론(북학파, 벽파)에서 나왔다. 삼국시대 부터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지배한 이념이 조선에서는 건국과 통치이념이 되었고, 16,7세기에 꽃을 피웠다.



성기주 법 칼럼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지난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몇 가지 이민에 대한 개정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크게 아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시민권자의 부모에 대한 추방유예;
2. 국경 안전에 대한 추가 조치; 그리고
3. 가족과 취업관련 영주권 절차에 대한 개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번 정도입니다. 2번은 결국 국경에 대한 예산을 더 집행하는 정도일 것이고 3번은 아무리 읽어봐도 어떻게 바꾸겠다는 말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합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잘하겠다 정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고 내년 초나 되야 확실한 취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1. 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 (DAPA))

a. DAPA

DAPA 라고도 불리는 이번 조치는 지난번

청소년에 대한 추방유예 (DACA) 와 같이 별도의 법개정 절차 없이 대통령 명령에 의해 행정부 독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엄밀히 말씀드리면 어떠한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서류 미비자에 대한 추방 권리는 한시적으로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b. 자격조건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인 자격조건이 나오겠지만 아래는 현재까지 발표된 자격조건들입니다:

- 2014년 11월 20일 현재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인 자녀를 둔 자;
- 2010년 1월 1일부터 계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자;
- 2014년 11월 20일 미국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 자; 그리고
- 범죄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앞으로 세금과 관련된 사항 등 추가 사항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c. 실행 및 신청

아직 신청서 양식, 신청료, 구체적 자격조건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이민국은 행정명령일 (2014년 11월 20일) 로 부터 180일 이내에 DAPA 를 실행해야 합니다. 즉,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늦어도 내년 5-6월에는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d. 혜택 및 유의사항

자격조건이 충족된 신청자들은 총 3년간 임시적으로 추방이 유예됩니다. 3년이 지나면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 (DACA) 와 같이 신청서가 기각되면 바로 추방절차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신청조건이 발표되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는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것 입니다. 또한, 이민사기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조건도 발표되지 않았고 신청서에 대한 deadline 도 없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지금부터 신청준비를 필미로 금전적

인 대가를 요구하는 것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추가조치가 나오면 여러 매체를 통해 발표될 것입니다. 그 때부터 준비하셔야 늦지 않습니다.

e. DACA

청소년 추방유예조치에도 추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2년 실행 때 있었던 신청 시 신청인의 나이가 31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lookjis.com



그가 온다!!!

변진섭

“희망사항”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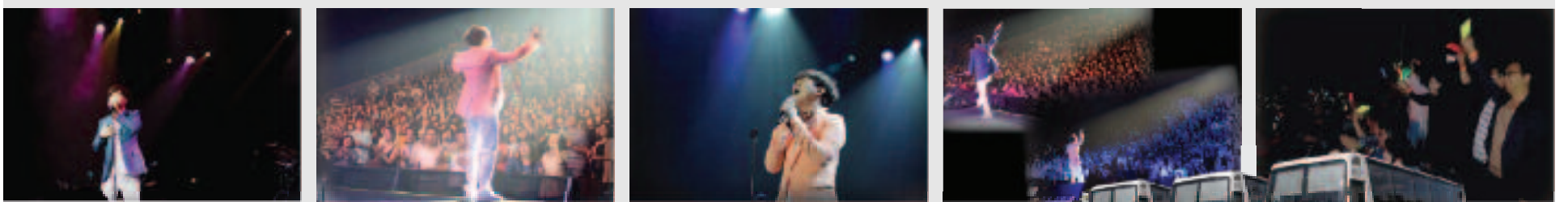
5인조 하영석 밴드

pav M&C

희망사항
 홀로 된다는 것
 숙녀에게
 미워서 미워질때
 지금 이대로
 사랑 그놈
 비와 당신
 로라
 그대에게
 새들처럼
 너무 늦었잖아요
 사랑이 올까요
 구름 닮은 친구
 그대 내게 다시
 그대만의 모습
 저 하늘을 날아서
 가장 슬픈날의 왈츠
 너에게로 또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대
 안녕이라 말하지 말아요
 내게 줄 수 있는건 오직 사랑 뿐



EARLY BIRD SPECIAL
 11월 중에
 티켓을 구매하시면
 공연후 가수와 사진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5일 목요일 오후 8시

티켓 \$30, \$50, \$70, \$90, VIP \$120

(가수와 사진촬영 가능)

셔틀버스 운행 (뉴욕 플러싱)

선착순 100명
 왕복요금 \$20

1차 출발: 오후 6시 한양마트 앞
 2차 출발: 오후 6시20분 공영주차장 앞
 **본 버스 티켓은 예약 또는 구매시 함께 구매하셔야 합니다.

티켓 예매 및 판매처 교차로신문사 718-460-0114 | 한양마트 ticketmaster.com

공연장 Bergen Performing Arts Center(뉴저지 버겐팩) 30 North Van Brunt St., Englewood, NJ 07631

주최: 교차로 신문사 레이디경향 주관: pav M&C 특별후원: ASIANA AIRLINES 7 언론후원: 교차로 협의회 벵룩시장 코리아 버겐뉴스 보스턴 코리아 카로수 월운 후원: 동로상회 wellbeing PLUS 우리사우나 WOOD SAUNA & SPA 한양마트 코리아나투어 tbo 다모탈모병원 핑크네일 에릭오 구강악안면외과 NVE BANK You belong here.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올바른 성교육VIII, 사춘기 여아 13세-18세)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청소년 여아의 자존감 형성은 ‘아버지와 대상화’ 형성 과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학설의 대상이론은 필자의 생각을 뒷받침 하여준다. 그 중, 지난번 칼럼을 통해 미성숙한 오디프스 콤플렉스 학설이 어떻게 청소년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피력하였다. 미성숙한 오디프스 시기를 가지게 되는 두가지 원인을 말한다. 하나는 아버지와 관계의 부재가 주는 아버지의 이상화(Idealization)고, 다른 하나는 딸에 대한 아버지의 지나친 애착이다.

첫 번째 원인을 케이스 ‘제인’ 을 통해 설명한다. 어린 시절, 여아가 아버지와 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버지를 통한 남자 대상화(Male Identification)가 튼튼히 형성되기 어렵다. 오디프스 과정이 미성숙하게 형성될 수 있다. 사춘기의 청소년이 처음으로 이성에게 연정을 갖게 되면서 무의식 속에 자리잡았던 미성숙한 오디프스 콤플렉스가 다시 나타난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부재로 받았던 무의식 속의 상처로 인한 ‘왜곡된 관계’가 이성과의 첫 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유 모를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다.

제인은 결혼 후 6년 만에 어렵게 얻은 무남독녀였다. 태어날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아버지는 출장이 잦았다. 한 달에 제인이 아버지를 보는 날은 불과 십일에 불과했다. 바쁜 사업의 이유를 들며, 자신의 중요한 날들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아버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환상 속에서 무심한 아버지를 ‘이상화된 아버지’ 로 대신하며 위안했다. 그럴수록 제인은 아버지가 더욱 갈망되었고, 더 이상화 되었으며, 아버지를 독점하고 싶었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그녀의 미성숙한 오디

프스 형성이 첫 남친과의 이성교제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버지 외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첫 남친이라는 ‘남자 대상화’가 가까워질수록, 웬지 모르게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연애를 하면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분리 불안(Separation Anxiety)’을 겪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성관계 이후 남친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고, 밀착한 관계가 될수록 남친이 자신이 싫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분리불안’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미숙한 청소년인 제인은 미숙한 청소년 남친이 성관계에서 주는 달콤함과 다정함만으로도 그녀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은닉해왔던 상처들, 점점 커지는 ‘분리 불안’, 남친과의 에로틱한 사랑이 겹쳐지면서, 제인은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제인의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에 겁이난 남친은 제인을 피하기 시작했다. 남친이 피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더욱 남친에게 집착하게 되었고, 남친은 그럴수록 제인을 더 회피하고 무시했다. 아버지의 부재를 ‘이상화된 아버지’ 로 대신하며, “사랑 받는다”고 느끼는 ‘왜곡된 관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투사화한 동일시(Projective Identification)’ 현상이 과거와 같은 형태의 ‘방어기제’를 갖게 한 것이다. 무심한 아버지와 남친을 동일시 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불안한 감정을 남친에게 투사하였다. 제인의 남친이 ‘그녀의 아버지’로 전이된 것이다.

남친과 헤어진 후, 제인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더 이상 제인의 행동을 감당할 수 없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제인의 반항을 감당 못하던 아

버지는 손찌검을 하게 되었고, 태어나서 처음 구타를 당한 제인은 충격에 빠졌다. 걷잡을 수 없이 관계가 악화되며 테라피 요청이 들어왔다.

테라피를 통해 제인 아버지는 자신의 미성숙한 오디프스 콤플렉스를 알게 되었다. 그는 세 명의 누이와 남동생, 그리고 배다른 형이 있었다. 자신을 첫째 아들이라며 무조건 선호하는 어머니의 절대적인 사랑 속에 자라났다. 그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의 외도로 이미 배다른 큰 형이 태어나 있었다. 그와 이복형은 불과 3개월 차이였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외도를 할 동안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에 살았다. 다행스럽게도 그가 태어남으로 인해 아버지는 어머니께 돌아왔다. 어머니는 힘이 약했고, 아버지는 ‘신’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한편으로는 미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화하였다. 로데 다흐저에 의하면 부재한 아버지는 딸과 마찬가지로 아들로부터도 이상화되며, 아들을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책임감으로 이끈다(Christa Rohde-Dachser, 1992).

그의 아버지는 자녀양육의 책임을 어머니에게 떠맡겼고 무심했다. 그의 오디프스 형성 과정 중, 그의 ‘여성 대상화’는 힘 약한 어머니상과 연결되어있다. 아버지에게 무시당하는 어머니를 보며, “여자는 약하니 보호해야 한다”는 투철한 의무감으로 어머니를 보살폈다. 그의 ‘남자 대상화’는 지배력과 독점력의 이상화된 아버지 상이다. 부모의 대상화를 통한 동일화(Identification)를 통해 그는 매조키스틱한 ‘여성화’와 새디스틱한 ‘남성화’가 형성되었다. 약한 어머니를 보살펴야 한다는 ‘의무감’과 어머니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던 아버지의 ‘권리’가 합쳐진 ‘지나친 남

자다움’이었다. 그도 제인처럼 미성숙한 오디프스 시기에 고착(Fixation)되어 있었던 것이다.

테라피를 통해, 아버지는 제인에게 결핍된 것은 자신의 관심과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제인에게 선망의 대상의 이상화한 아버지가 아닌 제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아버지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제인에게 사랑 받는 느낌을 전해주기 위해 제인의 아버지는 일을 급격히 줄이고, 출장을 되도록 삼갔다. 그 대신 자신이 무심함이 파생한 가족의 상처를 인정하고 책임지려 했다. 제인의 주파수에 맞추며 서로 소통을 하려 노력했다.

대상관계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초기 인생 과정이 후기 인생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로 투사화한 대상화가 자신의 현재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인생 초기 과정의 미성숙한 오디프스 콤플렉스는 복구될 수 있다. 제인 아버지는 자신의 미성숙한 오디프스로 인한 자신 가족과의 ‘왜곡된 관계’를 이해했다. 그 또한,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일 중독’으로 보상받고, 그의 아버지가 한 것처럼 가족에게 무심했고, 제인과 아내를 ‘약한 어머니상’으로 동일시 하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애증을 가족에게 투사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노력으로 제인은 자존감을 갖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보여주는 좋은 남자의 대상화는 다른 이성과의 관계에 자신을 갖게 했다. 이렇게 제인과 아버지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다음 칼럼을 통해, 지나친 아버지의 애착이 어떻게 오디프스 시기를 겪고 사춘기 여아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보스톤엔 보스톤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착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티보 VIP 할인!

\$29.99

(2년 약정시)

11월, 12월

VIP
할인 이벤트

기회를 잡으세요!

이벤트 기간

2014년 11월~12월

이벤트 내용

이벤트 기간중에 가입 고객은

1년간 VIP \$29.99

1년 이후 \$34.99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서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58) 최근의 주식시장 경험

새해를 맞이한 2월 3일 다우존스는 15,373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인 9월 10일에는 거의 2,000이 증가하여 17,280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올해 최고 높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한달 후인 10월 16일은 1,100 (6.7%) 하락으로 다우존스는 16,117로 마감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투자자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10월 16일 “주식시장 하락”이라는 재정칼럼을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불안한 마음에 주식을 처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시간은 벌써 찬 바람이 매섭습니다. 작년 기록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폭설을 경험한 후 힘이 좋은 차(four-wheel-drive)를 요구하여 수요가 6%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름에는 기온이 20도씩 올라감에 따라 지붕 없는 차

(Convertibles)의 판매가 8.5%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University of California's Riversid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사람들은 최근 일어난 일에 의해서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다. 맑은 날씨가 며칠 계속되면 앞으로도 맑으리라 생각합니다. 비 온 뒤 우산을 준비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연구 (Behavioral Finance)하는 학계에선 “근래 편견(recency bias)”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7월 31일에는 다우 존스가 317이 하락했습니다. 약 2%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6개월 만에 경험한 하락이었습니다. 며칠 후 7월 재정문서를 받아보면 하락한 자산에 불안한 마음과 함께 투자를 포기하고 주식시장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잘못된 결정은 사실 투자자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모든 신문, 방송, TV, 인터넷, 등 모든 미디어가 한몫 했기 때

문입니다.

이러한 투자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커다란 흐름입니다. 한 연구소(Ibbotson Associates) 발표에 의하면 1926부터 현재까지 미국 주식시장의 연평균은 10%입니다. 10% 평균 수익률은 최근 있었던 기술주 폭락(2002)과 금융위기(2008) 등을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금융업계에서는 10% 하락은 조정 (correction)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1950년 이후 10% 이상 하락이 28번 일어났습니다. 하락한 중간 평균 (median)은 16.5%이었으며 하락한 평균 기간은 7.8달이 지속되었습니다. 참고로 20% 이상 하락은 9번 그리고 30% 하락은 5번 일어났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나의 자산이 16.5% 하락하면 잠을 편히 잘 수 없습니다. 다행히 위의 나타난 숫자는 100% 주식에 투자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주식투자는 채권투자자와 비교하면 위

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용하여 투자 위험성을 조절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때 50%는 주식에 50%는 채권에 자산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하락해도 영향을 받는 부분은 50%이므로 나의 포트폴리오가 8.25%만이 하락합니다.

주식에 50%만 투자한다고 해서 나의 투자 수익률이 50%로 일률적으로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이 하락해도 채권에서 나오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 위험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서 수익률도 같은 비율인 절반으로 적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개념을 모던 포트폴리오 (Modern Portfolio Theory) 학설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앞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언젠가 10% 분명히 하락합니다. 20% 이상 하락 (Bear Market)할 수

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은 언제인지를 모르는 것뿐입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 해도 사실 투자자에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락했다가 반드시 다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라갈 때 전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특히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수한 사람이 그저 예측해 볼뿐입니다. 실제로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구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17,000에서 20,000까지 올라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10% 하락하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18,000으로 떨어집니다. 18,000은 현재의 17,000보다 더 높은 지수입니다. 오르고 내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주식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주택 거래 무산시키는 복병 따로 있다 (2)

(지난 호에 이어)

■ 타이틀

주택 소유권과 관련된 결함도 원활한 주택 거래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이다. 흔히 타이틀로 불리는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는 워낙 다양해 일반인이 일일이 조사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에스 크로를 시작한 뒤 타이틀 보증 보험회사를 통해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이틀 보증 보험회사 측은 해당 카운티에 등기된 매물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 소유권과 사용권에 영향을 줄만한 각종 사항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 셀러와 바이어 측에 전달한다.

만약 타이틀 보고서에서 향후 소유권과 사용권을 제한할 만한 민감한 사항이 발견되면 주택 거래 완료 전 반드시 깨끗하게 정리된 뒤 바이어 측에 소유권이 양도되어야 한다.

타이틀 보고서에 흔히 기재되는 사항으로는 모기지 대출 은행 측이 등기한 신탁 증서와 각종 정부기관이 필요할 때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그러나 최근 신분도용 범죄가 급증하고 각종 크레딧 부채 연체자가 늘면서 본인도 모르는 ‘선취특권’ (lien)이 등기되는 경우가 비밀비재해 주의가 필요하다. 이때 타이틀 보증 보험업체를 통해 해당사항이

본인이 아님을 증명해 타이틀에서 삭제해 요청해야 한다.

■ 모기지

바이어 측이 모기지 대출을 받지 못하면 주택 거래는 무산되기 쉽다. 그래서 셀러는 오퍼를 제출 받을 때 바이어 측으로부터 용자 사전 승인서와 바이어의 크레딧 리포트 등도 함께 제출받아 모기지 대출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셀러 측의 사전 점검에서 바이어의 대출 확률이 높아 보여도 대출 심사기간에 발생하는 변수로 인해서도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모기지 대출이 일단 한 차례 거절되면 단 시간 내에 대출을 다시 받는 작업이 쉽지 않다. 대출 거절이 확실시되면 양측 모두 할 수 없이 주택 거래 취소에 합의해야 하고 바이어 측은 계약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

■ 보험 가입 불가 매물

주택상태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감정도 적정하게 나왔지만 정작 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도 주택 거래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 은행 측은 바이어

로 하여금 대출 승인 조건으로 반드시 적절한 주택 건물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는데 일부 주택의 경우 보험 업체로부터 보험 가입이 거절되기도 한다.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이유는 과거에 이미 큰 금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을 경우 등이다.

규모가 큰 누수 피해나 곰팡이 발생 피해 등으로 보험업체에 큰 금액의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 이같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규 보험 가입 때 일부 보험 업체로부터 가입이 거절된다.

모기지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구매의 경우 주택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다. 하지만 차후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피해를 대비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어가 주택 구입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H MART® 와 함께하는



한국 농특산물 특별판매전

November 28 - November 30 & December 5 - December 7, 2014
Only at Hmart Burlington Store

Traditional Korean Marketplace

Hmart and Nong Hyup brings Korea's finest products to America. Create your own healthy dinner table with products from Nong Hyup.

H마트가 농협과 함께 다양한 한국 최상의 제품들로 한국산 농수산물 특별판매전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맛보시고 100%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수산물을 구매하세요.



A Korean Tradition Made in America. Since 1982.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경시 대회 참여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미국 내에는 다양한 경시 대회가 각 분야별로 있다. 모든 경시 대회에서 입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먼저 경시대회는 학교(School), 지역(District) 또는 주(State), 국가(National), 국제(International)대회 등으로 분류된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국제대회 입상을 가장 크고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하바드는 국제대회 입상도 큰 요소로 보지만 학교 내에서 받은 특별상과 경시 대회 입상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물론 교내에서 받은 성적 우수상(Honors), 최우수상(High Honors)은 큰 의미가 없다. 가능하다면 각 분야별 경시 대회 입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영어 경시 대회

- National Scholastic Writing Contest
- NCTE(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Writing Competition)
- The Short Fiction Contest by Kenyon Review
- Americanism Essay Contest
- Ayn Rand Institute Essay Contest
- International Student/Teacher Essay Contest

- Bennington Young Writers Competition
- 수학 경시 대회**
- AMC 10,12/AIME(American Invitational Math Exam) 또는 KME(Korean Math Evaluation)/USAMO(USA Math Olympiad) 또는 KMO(Korean Math Olympiad)/IMO(International Math Olympiad)
- HMMT(Harvard-MIT Math Tournament)
- New England Math Contest
- Math Count
- 역사 경시 대회**
- Concord Review
- National History Day Contest
- National History Bee and Bowl
- National Economics Challenge
- 외국어 경시 대회**
- Junior Classical League(National Latin Exam)
- National French Exam
- National Spanish Exam
- National Italian Exam
- The Chinese Proficiency Exam(HSK)

- Arabic Language Proficiency
- National Russian Exam
- National Japanese Exam
- 과학 경시 대회**
- IBO(International Biology Olympiad)
- IPO(International Physics Olympiad)
- ICO(International Chemistry Olympiad)
- Intel Science Talent Search(Intel STS)
- Intel ISEF(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Fair)
- Siemens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on
- NASA Space Settlement Contest
- Google Science Fair
- Junior Science and Humanities Symposia(JSHS) 등에서 입상 경험이 중요한 요소다. 물론 이것 말고도 다양한 경시 대회가 있다. 특히 특별 장학금(Scholarship) 수상자들의 경우는 거의 하바드에 리쿠르트될 가능성이 높다. 장학금 경시 대회인 Bronfman Youth Fellowships in Israel, John Motley Morehead Scholarship Foundation, Jefferson Scholarship Foundation, Coca-Cola Scholarship Program National Award Winners, Winners of National Merit and National Achievement Scholarship Program (PSAT)등의 입상자들은 하바드 입학 확률이 매우 높다. 경시 대회는 학생이 어떤 분야에 흥미와 재능이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평가도구이다.

ship Program National Award Winners, Winners of National Merit and National Achievement Scholarship Program (PSAT)등의 입상자들은 하바드 입학 확률이 매우 높다. 경시 대회는 학생이 어떤 분야에 흥미와 재능이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평가도구이다.

"저는 지금 하바드 2학년 학생입니다. 하바드 입학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은 피아노 콩쿨, 영어 에세이 경시대회, 수학 경시 대회(AMC와 AIME)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을 보면 인텔 입상자, 과학 올림피아드 입상자들, 경제 대회 입상자, 그리고 권위 있는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출된 학생들이 너무 많아 내가 어떻게(?) 하바드에 입학 허가를 받았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별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할 때는 친구들로부터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점은 좋습니다. 하바드가 다양한 분야의 미래 지도자들을 뽑는 학교란 점을 다양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통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열심히 하여 보다 많은 한국 학생들이 하바드에 입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대학 입학 원서 에세이에도 그렇지만, 인터뷰 질문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골 문항은 역시 "왜 우리 학교에 오고 싶은가?"이다. 물론 이와 비슷한 형식의 다른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학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라거나 "스스로 우리 학교와 맞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라는 식이다. 학생이 얼마나 학교의 학풍이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지 판단하고, 뒤이어 졸업 후의 성공 가능성까지 예측하기 위함이다. 즉,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학생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하바드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자. '과학 프로그램이 좋아서'라는 대답은 오히려 더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다. 일단 많은 대학교들이 좋은 과학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그만큼 자랑으로 내세운다. 결국, 하바드에 대한 열정

을 보여 줄 수 있기는커녕 별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까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내 스스로 도전하고 싶어서' 라던가 '보스톤 지역이 좋아서'라는 대답도 별 도움이 안되긴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지만, 수많은 대학들이 같은 대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로 하바드의 우수한 과학 프로그램이 관심이 간다면, 하바드의 코스 카탈로그나 특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조사해보고 하바드에서만 찾을 수 있는 수업 혹은 다른 대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기회들을 찾아봐야 한다. 즉, 스스로 선택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만큼 학교에 대한 열정을 내비쳐야 한다.

나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답변을 하는 방식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할 때 학문적인 관심이 우선 순위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대학에 진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전공 등, 지원하는 학교의 커리큘럼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는 분야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미술이나 스포츠, 과학 경시대회 참가 경력 등 기타 과외 활동에서의 관심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 주고, 수많은 다른 지원 학생 중에서 돋보이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자만심에 차서 허세를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자랑은 괜찮다. 하지만 반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변명

대학교 인터뷰 (2)

이나 핑계로 채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신 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SAT 점수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SAT 보는 날마다 아팠어요" 라던가, 다른 과목보다 낮은 AP History 성적에 대한 질문에 "역사 선생님이 저만 싫어해요"라는 말은 스스로를 깎아내릴 뿐이다. 마찬가지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기회를 놓쳤다는 식의 핑계도 좋지 않다. "다른 활동에 집중하고 싶어서"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 같아서"는 전혀 다른 대답이다.

대학 인터뷰는 최종 입학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립대학들은 너무나도 많은 지원 학생의 원서를 받기 때문에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이비리그 등의 일류 사립 대학에서는 인터뷰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한다. 점점 더 지원 학생 수가 증가하여 지역마다 지원자들을 담당할 면접 담당관이 부족한 형편이라 인터뷰가 필수가 아닌 선택 조항으로 바뀐지 오래지만 그만큼 인터뷰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유학생들에게 인터뷰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동양계 유학생들은 보통 내신이나 시험 성적은 매우 뛰어나지만 영어의 표현 방식이 매끄럽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과제 점수는 좋으면서 수업에 대한 참여

도에서 점수를 깎이는 경우도 이 때문이다.) 같은 동양인, 한국인 유학생 사이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터뷰는 자신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된다.

인터뷰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인터뷰를 포기한다. 학교 생활에 바쁘고, 시험이나 과외 활동 등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인터뷰에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인터뷰는 선택 사항인 동시에 많은 대학들이 권장하고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인터뷰 기회를 포기하는 학생은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인터뷰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자신감 있는 태도와 미래에 대한 비전,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 대한 관심으로 무장하고 내게 주어진 기회를 편하게 즐기자.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a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www.pospay24.com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노퍽 새 기계, 새 셔츠유닛, 부유한 동네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소유자 32년만에 은퇴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10,000 매매가격 \$39,000

동양 그로서리, 연매상 \$415,000 다운타운 보스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100,000

보스톤 남쪽 아이스크림, 연매상 \$400,000 프랜차이즈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가격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훌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SAT I,II 주말 Intensive Class

SAT I Class

1. 대상: 시험을 앞둔 10,11,12학년

2. 특징:

- 실전문제풀이 중심으로 다가오는 시험대비 및 최종점검
- 종일 프로그램(9:00-5:00)
- 4주 단위로 상시 등록가능
- 실력있는 강사(영문학 박사로 본원에서 4년 강의중)

3. 수업일정

9:00- 9:30 단어테스트
9:30-11:30 class(reading/writing)
11:30-12:30 점심식사
12:30- 5:00 Full set 실전문제풀이

SAT II Math II C Class

- 다년간 경험의 공학박사 강사
-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2014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일정: 11.22(토)~30(일)

(11.27일 추수감사절 당일은 휴강)

2. 프로그램 내용

- SAT I/SSAT/TOEFL Class(3명이상)
- SAT 2 Subject Test Prep (Math/Science/History/Language)
- All subjects for private tutoring
- National Contest Prep(AMC 10&12)

3. 프로그램 참가자의 숙식 및 교통편 알선

*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 www.bostonedu.org

아카데믹 프로그램

1. SAT 1,2 /AP/SSAT/TOEFL 및 전 학과목 개인수업 가능

- 학생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 Skype수업 가능

2. Reading/Writing class

- 현직 영어교사 강의
- 다양한 장르의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 독서후 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향상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